

P·A·R·T 05

방송영상프로그램 트렌드

Broadcasting Industry White Paper

제 1 장 장르별 방송영상프로그램

- 제 1 절 드라마
- 제 2 절 예능/오락 프로그램
- 제 3 절 교양/다큐멘터리
- 제 4 절 뉴스/시사 프로그램



장르별 방송영상프로그램

제5부 방송영상프로그램 트렌드

제 1 절 드라마

1 여는 글

신데렐라의 유리 구두는 깨졌다. 꿈으로 도피할 것인가, 현실을 직시할 것인가. 2011년 하반기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텔레비전 지상파를 통해 방영된 드라마들에서 크게 두드러진 동향은 저 세 문장으로 요약 가능하다. 2000년대 들어 한국의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줄곧 돌출적인 실험과 시도는 끊이지 않았지만 유의미한 흐름으로 간주할 만한 움직임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이 시기에 방영된 드라마들의 변화는 향후에도 유사한 실험과 시도로 이어질 씨앗을 배태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지난 1년간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첫 번째로, 오랜 기간 대한민국의 미니시리즈에서 각광받아왔던 테마인 ‘신데렐라 멜로 드라마’ 및 ‘로맨틱 코미디’가 퇴조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0년 하반기에 방영된 SBS 주말 특별기획 <시크릿 가든>과 2011년 상반기에 방영된 MBC 수목 미니시리즈 <최고의 사랑> 이후, 이러한 멜로드라마 장르의 작품들 중 큰 반향을 얻은 것은 찾기 힘들다. 그리고 방영된 로맨스 물들 중에도 기존의 장르 관습을 파괴하는 작품이 줄을 이었으니, 이에 대해서는 다음 챕터에서 상술하도록 한다.

두 번째로, 장르 드라마 실험의 가속화를 꼽을 수 있겠다. 이는 첫 번째 항목과도 연관되는 이야기인데 기본적으로 로맨스물인 드라마들에서도 장르 퓨전의 성격이 강한 작품들이 줄을 이었으며(MBC 월화 미니시리즈 <해를 품은 달>, SBS 수목 미니시리즈 <옥탑방 왕세자> 등), 특히 판타지(fantasy)의 색채를 가미한 작품들이 급증했다. 그 외에 본격 메디컬 드라

마라든가, 형사물, 정치스릴러, 심지어 슈퍼히어로 물까지 그 어느 시기보다 새로운 장르의 실험들이 이어졌고 많은 호응을 얻었다.

세 번째로, 당대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반영한 작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대개 대중매체인 드라마에서 사회상이라는 것은 은유적으로 반영되기 마련이다. 현대 그러한 메시지들이 드라마를 통해 직접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당대 한국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극적으로 표현하여 높은 반향을 일으킨 SBS의 월화 미니시리즈 <추적자: The Chaser>나 SBS의 수목 미니시리즈 <유령>과 같은 현대물은 물론이요, SBS 수목 미니시리즈 <뿌리 깊은 나무>나 MBC의 주말 특별기획 <닥터 진>과 같이 과거를 배경으로 한 사극에서도 이러한 징후는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아울러 시청자들의 오랜 사랑을 받아온 사극과 시대극 장르에 부는 새로운 바람과, 가족극에 안주하지 않으려는 주말연속극들의 융틀임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2011년 하반기에 개국한 중편채널들이 한국 드라마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함께 짚어보고자 한다.

2 2011~2012년 상반기 드라마들의 특성

1) 신데렐라 드라마의 퇴조와 로맨스 공식의 균열

‘인기 배우를 등장시켜 도시풍의 생활이나 새로운 문화 등 젊은 세대의 취향을 소재로 한 텔레비전 드라마’. 이른 바 ‘트렌디 드라마(trendy drama)’의 정의다.¹⁾ 흔히 동료 직원 간의 러브스토리를 담은 1991년도 일본드라마 <도쿄 러브스토리>를 그 시초로 본다. 이 새로운 사조는 한국에 발 빠르게 유입되어 이듬해인 1992년 MBC에서도 우리나라 최초의 트렌디 드라마인 <질투>를 제작·방영한 바 있다.

이러한 트렌디 드라마는 한국에서 독자적인 진화를 거듭하는데,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 작품은 1994년에 방영된 MBC 미니시리즈 <사랑을 그대 품안에>다. 이 드라마를 통해 재벌가 출신의 남성과 서민층 여성의 사랑이라는 한국 트렌디 드라마의 공식이 완성되었고, 이는 이후 오늘날까지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가장 인기 있는 로맨스물의 형태로 자리 잡았다. 심지어 비극적 멜로드라마에도 이 같은 기본 설정을 차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류 드라마 열풍의 진원지가 된 KBS 미니시리즈 <겨울연가>(2001)도 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진화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괴리가 발생했다. 유행을 담는 데 있어서는

1) 다음 사전(<http://dic.daum.net>)

침단을 달리는 장르가 트렌디 드라마이건만, 재벌 연애물 포맷이 등장하면서 관계를 다루는 방식이 퇴행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작품들에서 남성 캐릭터는 경제적으로는 물론 관계의 주도권에서도 우위를 점한다. 여성 캐릭터는 ‘남자가 과거에는 깨닫지 못했던’ 무형적인 가치를 선사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관계의 선언은 남자의 입을 통해 이루어지고, 거기서 로맨스가 시작된다. 하여 신데렐라 드라마라는 별칭을 얻게 된 한국의 재벌 트렌디 드라마들은 여러 번 그러한 관습을 탈피하려는 시도를 돌출적으로 보여준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년과 같이 그러한 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난 사례는 드물었다 하겠다.

첫 번째 사례, 성(性) 역할 전도의 경우다. 2011년 8월에 방영을 시작한 SBS의 수목 미니시리즈 <보스를 지켜라>를 보자. 지성이 연기한 남자 주인공 차지현은 재계순위 10위권 그룹의 경영전략팀장이자 총수의 아들이고, 최강희가 연기한 여자 주인공 노은설은 삼류 대학 출신 청년실업자였다가 차지현의 비서로 일하게 된다. 여기까지는 전형적인 재벌 신데렐라 드라마의 설정이다. 하지만 둘의 관계가 진전되면서 부각되는 것은 무림고수로부터 사사받은 노은설의 완력이다. 일보다는 노는 것에 관심이 많은 차지현을 그 완력으로 혼욕할 뿐만 아니라 마침내 연애도 그녀의 선언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전개가 단순히 역할 바꾸기에서 오는 쾌감만을 선사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데 <보스의 지켜라>가 보여준 시도의 핵심이 있다. 흔히 재벌 신데렐라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매력적으로 묘사되는 것은 단순히 재력 때문만은 아니다. 비록 그들은 성격적인 결함이나 트라우마를 안고 있을지언정 유능하며, 태어나면서부터 몸에 익힌 자존감의 카

그림 5-1-1 SBS <보스를 지켜라>와 MBC <나도, 꽃>



출처: SBS 홈페이지(<http://www.sbs.co.kr>), MBC 홈페이지(<http://www.imbc.com>)

리스마를 지니고 있다. 재미있는 점은 차지현이라는 캐릭터에게 그러한 재벌 2세 캐릭터들의 내면적 특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노은설에게 박탈당한다는 것이다.

‘돈이라는 변수를 제거한 재벌 남자 캐릭터에게 무엇이 남을까?’라는 이 같은 질문을 심화한 작품이 MBC의 수목 미니시리즈 <나도, 꽃>이다. 이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인 서재희(윤시윤)는 같은 장르의 다른 캐릭터들과는 달리 스스로 부를 이룬 자수성가형 부자다. 그에게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고생한 경험과 그에 따른 트라우마가 누구보다 크며, 무엇보다 다른 재벌 2세들처럼 태생적으로 학습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여자 캐릭터, 비록 가난해도 늘 씩씩한 신데렐라 여성들과는 달리 이 작품의 여자주인공인 차봉선(이지아)은 타인과의 관계맺음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거기에 그녀의 라이벌이자 의붓동생이며 세속적인 욕구의 화신과도 같은 캐릭터 김달(서효림)까지 가세하면서 이 드라마는 바야흐로 재벌 신데렐라 드라마를 정신분석학적으로 해체하는 지경에까지 이른다.

이렇게 <보스를 지켜라>와 <나도, 꽃>이 기존의 트렌디 드라마 관습을 바탕으로 안티테제(antithese)를 제시했다면, 아예 다른 차원의 로맨스 드라마를 고민한 작품들도 있다. 2012년 상반기에 방영된 MBC의 수목 미니시리즈 <아이두 아이두>와 SBS 주말 특별기획 <신사의 품격>이 그것이다. <아이두 아이두>의 여주인공은 업계 최고의 구두 디자이너인 황지안(김신아)으로, 그녀보다 한참 어린데다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댄 남자 주인공 박태강(이장우)과의 관계에서 아이를 임신하게 된다.

드라마는 미혼모 커리어 우먼이 부딪히게 되는 사회적 편견들을 가감 없이 담아내는 한편, 청년백수였던 박태강이 사회인이자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성장해가는 모습을 묘사하여 지금까지의 로맨틱 코미디와는 차별적인 전개를 보여준 바 있다. 그리고 <신사의 품격>에서는 대개 여자 주인공의 시점에서 진행되는 로맨스 드라마들과 달리 네 명의 남성,

그림 5-1-2 SBS <신사의 품격>과 MBC <아이두 아이두>



출처: SBS 홈페이지(<http://www.sbs.co.kr>), MBC 홈페이지(<http://www.imbc.com>)

그것도 40대 인물들의 시점으로 전개되는 특이한 형태의 구성을 내놓았다.

이렇듯 새로운 시도들에 비해, 이 시기 로맨스 드라마들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평균시청률 15.1%(이하 AGB닐슨미디어리서치)를 기록한 <보스를 지켜라>와 22.4%를 기록한 <신사의 품격>이 선전한 반면 대개 10.0%미만의 낮은 시청률을 기록한 것이다. 거기에는 <겨울연가>의 오수연 작가와 윤석호 연출 콤비가 새롭게 선보인 로맨스 물 <사랑비> 또한 포함되어 있다. 고전적이고 정통에 가까운 순애보로 성공을 거둔 사례는 김수현 작가의 SBS 월화 드라마 <천일의 약속>이 거의 유일하다. 이는 같은 시기, 다른 장르와 결합한 로맨스 드라마들이 거둔 성적과 대조를 이루며 시청자들의 욕구가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2) 장르 드라마와 결합한 로맨스물의 선전

2012년 상반기에 방영된 미니시리즈들 중 시청률과 화제성 모두에서 단연 으뜸을 차지한 것은 MBC의 월화 미니시리즈 <해를 품은 달>이었다(평균시청률 32.9%, 최고시청률 42.2%). 정은결 작가의 동명 로맨스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드라마는 퓨전 드라마로서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극의 외피를 띠고 있지만 시대는 가상이며, 무속신앙에서 유래한 판타지 설정이 강한데다, 이야기의 뼈대는 정통 로맨스에 가깝다. 유년시절부터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왕세자 흰(김수현)과 양반가의 딸 연우(한가인). 하지만 왕실 외척세력의 음모로 연우는 어린나이에 목숨을 잃고, 기억을 잃은 채 무녀 '월'로 다시 태어난다. 그리고 궁중 무녀로서 어느덧 왕위에 오른 흰을 모시게 되어, 둘은 새롭게 인연의 끈을 이어나간다.

<해를 품은 달>에서 단연 눈에 띄는 것은 가상 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극이라는 설정이다. 대체로 역사의 흐름을 아는 채로 시청하는 사극이 시청자들에게 서스펜스를 제공한다 면, 이 작품은 미스터리 구도로 전개된다. 또한 가상이니만큼 판타지라는 장치를 활용하는 데에도 장애가 없다. 하지만 <해를 품은 달>의 성취는 이렇듯 외적인 차별성에서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니, 특히 유년시절을 중심으로 두 남녀의 연애감정을 알차게 구축한 것이 주효했다. 속칭 '차가운 도시 남자'가 등장해 마치 게임 시나리오처럼 '밀당'을 벌이는 오늘날의 트렌디 드라마와 달리 '설렘'이라는 감정에 주목한 점이 이 작품의 성공요인이라는 것이다.

2011년 하반기에 높은 인기를 구가한 KBS 2TV의 미니시리즈 <공주의 남자> 또한 동일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비록 조선시대 단종-세조 연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정사에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이 작품의 주요 차별점이다. 허나 초야에 은거하며 나무꾼으로 살아가던 김종서의 손자와 세조의 장녀 세희 공

그림 5-1-3 MBC <해를 품은 달>과 KBS 2TV <공주의 남자>



출처: MBC 홈페이지(<http://www.imbc.com>), KBS 홈페이지(<http://www.kbs.co.kr>)

주가 사랑했다는 야사의 기록을 모티브로 했다는 것에서 보듯, 이 이야기는 고전 로맨스의 정수에 가까다고 할 수 있다. 마치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그리하여 2012년 상반기에는 이처럼 사극의 외양을 빌려 온 로맨스물 외에도 장르적인 성격이 두드러지는 멜로드라마들이 줄을 이었는데, 사극과 로맨스 외에 시간여행이라는 SF설정까지 가미한 SBS의 수목 미니시리즈 <옥탑방 왕세자>, 광복 이후 대한제국이 계승되어 입헌군주가 지배하는 가상의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한 MBC의 수목 미니시리즈 <더 킹 투 하츠>, 약혼자와 제자의 영혼이 뒤바뀐다는 판타지 로맨틱 코미디, KBS 2TV 월화 미니시리즈 <빅>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비슷한 시기에 방영된 이 세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SF/판타지 장르의 성격이다. <더 킹 투 하츠>와 같은 작품도 엄연히 대체역사 SF로 분류되는 바, 한편으로 2012년 현재 한국 텔레비전의 로맨스는 당대 혹은 현실에서 끊임없이 벗어나고자 애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어쩌면 어느덧 유효기간을 다해가는 재벌 신데렐라의 판타지를 대체하기 위해 더 거대한 판타지를 욕망하게 된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그리고 그 새로운 판타지의 자리에 많은 경우 '왕'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도 무척 의미심장하게 보인다.

전문직 드라마나 장르 드라마의 틀을 빌어 왔어도 결국은 주된 사건들이 로맨스에 종속되는 경향이 강했던 지금까지의 추세와는 달리 이 시기에 방영된 작품들은 장르적인 일관성도 뚜렷하게 지켰다는 점 또한 괄목할 만한 특성이다. 조선시대의 왕자였던 이각(박유천)이 세자빈 살인사건의 비밀을 파헤치려다 세 명의 중신들과 함께 현대로 시간여행을 하게 된다는 <옥탑방 왕세자>의 경우, 인과관계로 엮인 과거와 현재의 인물들을 통해 사

건을 해결해가는 것이 주된 플롯이다. <더 킹 투하츠>에서도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를 노리는 거대 군산복합체의 알력을 통해 정치 드라마로서의 성격 또한 강하게 드러냈다.

이 외에 동대문에서 시작해 세계 유수의 디자이너로 성장하는 네 젊은이의 이야기를 담은 SBS의 월화 미니시리즈 <패션왕>이나, 앙숙으로 만난 프로야구 선수와 여성 경호원이 사랑을 키워간다는 KBS 2TV의 미니시리즈 <난폭한 로맨스>에서도 장르적인 색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난폭한 로맨스>는 남자 주인공의 직업인 프로야구 선수들의 직업적 고충은 물론, 그를 괴롭히는 스토키를 추적하는 과정 또한 중요한 서브플롯으로 담아낸 바 있는데, 사건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김동아(임주은) 캐릭터의 경우, 추리문학의 하위 장르인 ‘코지 미스터리²⁾’ 탐정의 전형이기도 하다.

3) 정통 장르 드라마들의 역습

2012년 상반기 텔레비전 드라마의 경향에서 무엇보다 특징적인 사항은 그 어느 때보다 본격 장르 드라마 실험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상당한 반향 또한 이끌어내었다는 점이다. 이와 비견할 수 있을 만한 시기는 지난 2007년으로, 그해 벽두에 방영된 메디컬 드라마 <하얀 거탑>을 시작으로, 경찰물 <히트>, 판타지 미스터리 <마왕>, 첩보물 <개와 늑대의 시간>과 같은 드라마들이 연이어 시청자들 사이에서 화제를 낳은 바 있다. 그리고 2012년은 그로부터 5년 만의 장르 드라마 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장르 드라마의 시도는 근년에도 존재해 왔다. 2010년 하반기와 2011년 상반기에도 첩보물 <도망자: 플랜 B>과 <아테나: 전쟁의 여신>, 경찰 드라마 <강력반>과 같은 장르물들이 제작·방영되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별다른 화제를 낳지 못했고, 무엇보다 ‘봄’이라고 일컬을 만큼의 경향성을 띠고 있지도 않았다. 하지만 2012년에 등장한 장르물들에서는 시기적으로나 주제적으로나 묘한 일관성이 발견된다. 주제적이라 함은 거의 대부분의 작품들이 시대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중 많은 수가 화제의 중심에 놓였다.

이 시기의 드라마들 중 사회적인 이슈를 정면으로 다룬 작품으로는 SBS의 수목 미니시리즈 <시티헌터>와 <유령>, 그리고 SBS의 월화 미니시리즈 <추적자: The Chaser>를 꼽을 수 있겠다. 우리에게 일본의 동명 원작만화로 친숙한 <시티헌터>는 탈 정치적이었던 원작과 달리 아웅산 묘소 테러와 같은 한국 현대사의 대사건을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북파 특수요원들이 실재했다는 설정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설정은 드라마 서사의 무게중심을 묵직하게 잡아주는 한편, 그 후세대인 주인공 이윤성(이민호) 또한 당대의 한국 사회상과 떼

2) cozy mystery: 편안한 추리물. 범죄와 그 해결과정을 심각하고 무겁게 그리기 보다는 일상적인 사건들을 비교적 밝게 묘사하는 추리문학의 하위 장르. 할머니, 가정주부, 워킹 우먼 등 평범한 인물들이 탐정으로 등장한다.

그림 5-1-4 SBS <시티헌터>와 <유령>



출처: SBS 홈페이지(<http://www.sbs.co.kr>)

려야 뗄 수 없는 위치에 놓는다. 그리하여 권력욕을 위해 무고한 이들을 희생시켰던 관료들을 벌하는 메인 플롯을 기반으로 ‘반값 등록금’ 등의 뜨거운 이슈도 드라마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었다.

정통 법의학 드라마였던 <싸인>에 이어 김은희 작가가 다시 한 번 ‘사이버수사대’라는 독특한 소재의 범죄 물에 도전한 <유령>은 전편에서 보여주었던 진일보한 시도가 일회성이 아니었음을 증명했다. 미국이나 일본 드라마에서는 이러한 장르 드라마들이 매회 독립적인 에피소드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한국의 드라마 정서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구성이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다음 회의 시청 욕구를 견인할 수 있는 거대서사의 연속극 포맷이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대세라는 것이다. 하지만 <싸인>의 제작진들은 극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서사를 두되, 2~3회 단위로 해결되는 에피소드 구성을 병행하는 영리한 시도를 선보였고, 이는 <유령>에도 고스란히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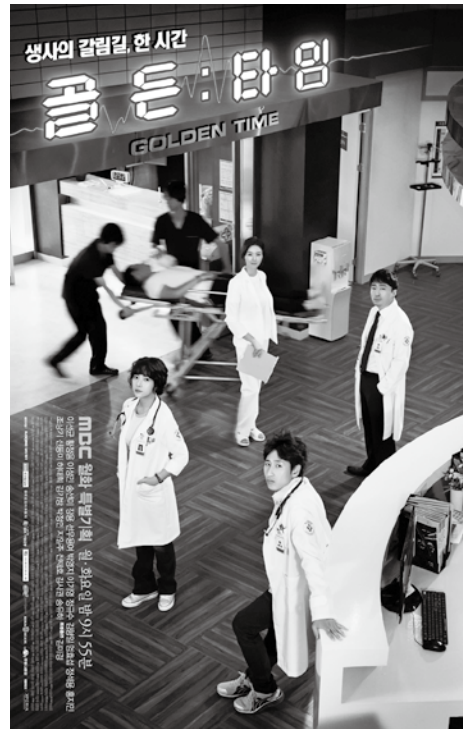
경찰의 추적을 받던 천재 해커 박기영(최다니엘)이 어느 여배우의 타살사건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를 눈치채고, 이 사건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형사 김우현(소지섭)의 신분으로 변신해 수사를 이어간다는 파격적인 설정의 이 작품에는 2012년 현재 한국사회의 여러 병폐들이 각각의 에피소드들을 통해 묘사된다. 연예인 동영상과 그에 따른 인터넷의 마녀사냥, 증시를 뒤흔드는 작전세력의 실체, 민간인 불법 사찰, 그리고 과열 경쟁을 부르는 입시문제까지.

이렇게 <유령>이 폭넓고 거시적인 시각으로 한국사회를 바라보았다면 <추적자: The Chaser>는 부패한 재벌과 정치권력이 스스로의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저지르는 추악한 행태들을 치밀하고도 미시적으로 접근하였다. 가난하지만 아내, 딸과 단란하게 살아가던 강력계 형사 백홍석(손현주)은 어느 날 교통사고 뺨소니로 딸을 잃는다. 하지만 범인을 쫓는 과정에서 바로 그 문제의 차량에 유명 연예인과 그의 정부인 재벌가 딸이 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게다가 그 딸은 유력 대선후보인 강동윤(김상중)의 아내인데 그들의

조작으로 사건 직후부터 진실은 속속 은폐되고, 그 과정에서 전직 법관과 검찰까지 결탁한 촌충한 비리의 사슬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이 문제작이 남긴 의미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무엇보다 인기보다는 연기력을 우선한 캐스팅, 그리고 평면적인 선과 악의 구도를 탈피한 다층적인 대립구도를 꼽을 만하다. 단순히 대리만족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상상력을 이 드라마는 끊임없이 자극하는데, 그것은 단지 피해자인 백홍석의 입장뿐만 아니라 인생의 밑바닥에서 출발한 권력욕의 화신인 강동윤의 입장에서조차 마찬가지다.

이러한 입체적인 구조와 캐릭터 설계는 그 전후에 방영된 두 편의 메디컬 드라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1년에 방영된 KBS 최초의 의학 드라마 <브레인> 그리고 2012년 MBC 월화 미니시리즈 <골든타임>이 그것이다. <브레인>의 남자주인공인 이강훈(신하균)은 수술 실력이 출중한 신경외과 의사이지만 출세 지향적이고 처세에 능한 한편, 성격적 결함도 가지고 있다. 말하자면 우리가 드라마에서 흔히 만나는 주인공 캐릭터라기보다는 라이벌 혹은 악역에 가깝다. 이는 2007년에 방영된 MBC 특별기획 <하얀 거탑> 캐릭터의 연장

그림 5-1-5 SBS <추적자: The Chaser>과 MBC <골든타임>



출처: SBS 홈페이지 (<http://www.sbs.co.kr>), MBC 홈페이지 (<http://www.imbc.com>)

선상에 있는 것으로, 그러한 주인공의 성공과 몰락, 그리고 깨달음의 과정은 권선징악적 성격이 강한 고전적인 전개와는 달리 시청자들에게도 한층 입체적인 체험을 선사한다.

〈골든타임〉은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간다.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인턴 이민우(이선균)와 강재인(황정음)의 성장 드라마이지만, 실질적인 주인공은 응급의학과 의사인 최인혁(이성민)이라 할 수 있다. 오로지 눈앞의 환자를 살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돌보지 않는 그는 오랜 경험으로 실력도 뛰어난데다 때로는 변칙적인 방법도 서슴지 않고 구사한다. 엘리트 코스를 밟은 각 과 과장들의 시선에서는 모난 돌에 가까운 인물이다. 여기서 드라마는 한 개인의 선의와 시스템의 역학관계를 파고든다. 많은 텔레비전 드라마들은 옳은 뜻을 가진 인물이 마침내 성공하는 판타지를 그린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수없이 많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조직이나 사회에서는 시스템을 위해 개개인의 선의가 희생되는 경우도 허다한 것이 현실이다. 요컨대 이 시기의 장르 드라마들은 진짜 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그 밖에 주목할 만한 장르 드라마로는, 본격 슈퍼히어로물이라고 해도 무방한 KBS 2TV의 수목 미니시리즈 〈각시탈〉, 정통 복수극 스타일였던 KBS 2TV 수목 미니시리즈 〈적도의 남자〉, 그리고 타임슬립이라는 SF 설정을 차용한 메디컬 사극 MBC 주말 특별기획 〈닥

그림 5-1-6 KBS 2TV〈각시탈〉과 〈적도의 남자〉



출처: KBS 홈페이지 (<http://www.kbs.co.kr>)

터 진》 등이 있다. 이들은 사극, 혹은 시대극의 틀을 빌려 왔어도 그 속에 당대 현실과 견주어 불만한 사회상의 은유가 등장한다는 공통점을 담고 있다(90년대 말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적도의 남자> 또한 마찬가지). 이외에도 미국 드라마 <글리(GLEE)>처럼 뮤지컬적인 요소를 활용한 KBS 2TV의 월화 미니시리즈 <드림하이 2>나 MBC의 수목 미니시리즈 <넌 내게 반했어>, 한류스타를 둘러싼 남북 간의 코믹 첩보극 <스파이 명월>, 항공기 파일럿을 주인공으로 한 SBS의 수목 미니시리즈 <부탁해요, 캡틴>과 같은 시도들도 이어졌으나 연애물로서의 성격이 지나치게 부각되거나(<드림하이 2>, <스파이 명월>), 부실한 고증(<부탁해요 캡틴>) 등의 이유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4) 주말연속극과 대하사극에 부는 새로운 바람

미니시리즈에 비해 일일드라마와 주말연속극은 보수적인 속성들을 지녔다. 오늘날의 현실과는 맞지 않게 대가족에 가까운 가족구성이 등장하는 등 가족중심적인 내용은 물론, 트렌드에 민감한 미니시리즈와는 달리 그 소재와 형식에서도 좀처럼 변화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주말연속극에도 상당한 균열들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본 항에서는 이른 바 ‘주말 특별기획’으로 분류되지만 성격상 주말연속극의 형식에 가까운 작품들까지 아울러 논하도록 한다.

그 주요한 징후는 소재의 확장이다. 어쩌면 미니시리즈에 적합해 보이는 설정들이 주말연속극에 끊임없이 이식되고 있는데, 사기이혼을 당한 결혼 3년차 주부 강재미(이보영)의 고군분투를 다룬 MBC의 주말 특별기획 <애정 만만세>, 고3 여고생 미혼모 도미솔(이소연)과 그녀를 둘러싼 사회적 장벽들을 묘사한 SBS 주말드라마 <내 사랑 내 곁에>, 대규모 건설사의 오너였다가 측근의 배신으로 추락한 뒤 복수를 꿈꾸는 한 여인과 그 가족의 이야기인 SBS 주말드라마 <내일이 오면>이 주요 사례들이다. 특히 <내일이 오면>은 첫 회부터 현장을 진두지휘하고 정치권 로비도 서슴지 않는 여주인공 손정인(고두심)의 모습을 통해, 여타의 주말극에서는 배경에 가까웠을 장르적 설정과 장치들을 전면으로 부각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미니시리즈의 속성을 가장 두드러지고도 성공적으로 이식한 작품은 2012년 상반기 최고 흥행을 기록한 KBS 2TV 주말연속극 <넝쿨째 굴러온 당신>이다(평균 시청률 35.9%). 이 드라마의 외양은 대가족이 등장하는 전형적인 홈드라마이지만 이야기는 결단코 시집살이를 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입양아 출신의 남편과 결혼한 커리어 우먼 차윤희(김남주)의 내레이션을에서부터 시작된다. 말하자면 차윤희의 세계는 트렌디 드라마의 세계요, 장차 시집살이를 하게 될 방씨 일가의 세계는 전형적인 주말연속극의 세계다. 얼핏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이 두 세계가 갈등하는데서 이 작품만의 극적인 재미가 탄생한

다. 거기에 방씨 일가의 삼남인 방정배(김상호) 가족이나, 방씨 일가 안주인 엄청해(윤여정)의 여동생인 엄순애(양희경)와 같이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은 여기에 시트콤의 에센스마저 더하며, 김승우, 홍은희, 지진희, 김장훈, 차태현 등 무수히 많은 카메오들의 합류는 극의 성격을 예능의 영역으로까지 확장시켰다. 단순히 주말연속극을 넘어 텔레비전 엔터테인먼트의 총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같은 성취는, 작가인 박지은이 이미 미니시리즈 <내조의 여왕>에서 성공을 거두었던 인물이라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 외에도 존엄사에 관한 화두를 던진 SBS의 주말 특별기획 <폼 나게 살 거야>나 언제나 긍정적으로만 묘사되던 가족중심주의의 가치에서 균열을 보인 <오작교 형제들> 또한 특기할 만하다. <오작교 형제들>의 주 무대인 '오작교 농장'은 애초 극중 백인호(이영하) 가족의 소유로, 그의 사업이 망한 후 황창식(백일섭) 일가가 관리하게 된다. 하지만 그 소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이 드라마의 실질적인 주인공들이라 할 황씨 일가는 극도의 가족이기주의도 숨기지 않으며, 농장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백인호의 딸 백자은(유이)을 궁지로 몰기도 한다.

주말연속극과는 달리 성향 상 남성 위주의 보수적인 시청자 층을 유지하고 있던 사극 장르도 퓨전이라는 이름과 함께 급속히 변화해 왔다. 이러한 변화는 어느덧 대하사극의

그림 5-1-7 KBS 2TV <넝쿨째 굴러온 당신>과 SBS <뿌리 깊은 나무>



출처: KBS 홈페이지(<http://www.kbs.co.kr>), SBS 홈페이지(<http://www.sbs.co.kr>)

영역까지 넘보고 있는 실정인데, 대표적인 사례가 KBS 1TV의 대하사극 <광개토태왕>이다. 이 작품은 심지어 정립의 소설 <광개토대제>와 형민우의 만화 <태왕복벌기>를 원작으로 하고 있다. 물론 당시의 사료가 풍족하지는 않다고는 하나, 픽션을 기반으로 제작된 이 작품에 대해서는 술한 역사 왜곡 및 고증 논란이 뒤따랐다.

하지만 픽션을 소재로 한 사극이 항상 부정적인 결과만을 낳았던 것은 아니다. SBS 수목 미니시리즈 <무사 백동수>와 <뿌리 깊은 나무>는 각각 홍기우·이재현의 만화 <야녀 백동수>와 이정명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지만 그 결과물은 많은 호평을 받았다. <무예도보통지>를 펴낸 영·정조 시대의 무인 백동수의 일대기를 다룬 <무사 백동수>는 원작의 탄탄한 고증을 계승하여 무기와 같은 소품 활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뿌리 깊은 나무>는 원작의 장점을 더욱 풍성하게 재창조했다는 점에서 찬사를 얻었다.

특히 <뿌리 깊은 나무>는 사극으로서의 장점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동 시기 한국 장르 드라마들의 혁신적인 시도들 또한 고루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내용에 있어서도 장르 포맷들이 복합적으로 포진되어 있는데, 어린 시절 권력자들의 알력에 아버지를 잃은 한짓골 뜰복/강채운(장혁)의 복수극 스릴러 플롯이 그 하나요, 집현전 학사 연쇄살인사건을 둘러싼 미스터리 플롯이 그 둘이요, 비밀결사단체 밀본과 조선왕실 간의 정치 스릴러 플롯이 그 셋이다. 거기에 무휼(조진웅), 이방지(우현)의 은원관계에서 빚어지는 무협 드라마적인 설정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난다. 이렇게 다채로운 장르를 오가면서도 극이 묵직한 안정감을 보여준 것은 탄탄하게 구축된 캐릭터들 덕분이다. 복수의 화신에서 출발해 그 복수의 대상을 목숨 걸고 지키려는 충신으로의 입체적인 변모를 보여주는 주인공 강채운은 물론, 어진 임금의 스테레오타입을 깨고 다혈질 임금으로 묘사된 세종대왕, 안타고니스트(antagonist)임에도 확고한 논리를 갖춘 가리온/정기준(윤제문) 등의 출중한 캐릭터들은 드라마의 완성도를 떠받치는 든든한 뿌리가 되었다. 그리고 같은 시기 다른 장르 드라마들과 마찬가지로 이 작품 또한 오늘날의 정치·사회상을 은유적으로 반영한 알레고리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외에 2000년대 이후 제작이 활발해진 삼국시대 사극 시리즈인 MBC 월화 미니시리즈 <계백>, 고려 무인정권 시대 인물 중에서도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던 '김준'(김주혁)을 주인공으로 한 대하사극 MBC 주말드라마 <무신> 등이 이 시기에 방영되었다. 또한 시대극으로는 한국의 연예, 쇼 비즈니스 성장사라는 이색적인 소재에 주목한 MBC 월화 미니시리즈 <빛과 그림자>가 있다.

5) 종합편성채널의 개국과 드라마 판도의 변화

2011년 12월 1일, TV조선, JTBC, 채널A, MBN의 네 개 종합편성채널이 개국했다. 그에

따라 드라마 분야에서도 적잖은 지각변동이 예상되었으나 의외로 그 후폭풍은 크지 않았다. 외적으로는 신규채널의 낮은 시청률, 내적으로는 양질의 드라마를 제작할 만한 자체 인프라의 부족이 개국 후 현재까지의 성적표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비록 외주제작사에서 만들어지는 드라마라 할지라도 방송사로부터 숙련된 미술팀의 지원을 받는 것이 관례인 현실에 비추어볼 때 무시하지 못할 핸디캡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 때문인지 2012년 상반기 이후로 TV조선과 MBN은 드라마 편성을 줄이고 있는 추세이며, 다른 방송사들도 정규방송 시간에 기존 방영작들을 재방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방영된 종편 드라마들의 동향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기존의 스타 연출가 및 작가 영입과 그들로부터 비롯된 실험적인 시도들이다. 특히 JTBC는 개국과 함께 노희경 작가와 김규태 PD(〈빠담빠담, 그와 그녀의 심장박동소리〉, 이하 〈빠담빠담〉), 김지우 작가와 박찬홍 PD(〈발효가족〉)의 신작을 방영하며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정성주 작가, 안판석 PD(〈아내의 자격〉), 황인뢰 PD(〈러브 어게인〉)의 라인업이 줄을 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 지상파 출신 스타 감독과 작가들이 선보인 종편 드라마들의 내용이다. 묘하게도 상당수의 경우 그들이 가장 최근에 지상파에서 만든 작품들과는 다소 다른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활〉(2005), 〈마왕〉(2007) 등 미스터리 스릴러 계열의 장르 드라마 연작을 내놓았던 박찬홍, 김지우 콤비의 〈발효가족〉은 김치를 소재로 한 담백한 멜로드라마다. 〈하얀 거탑〉(2007)의 안판석 PD는 과거 〈장미와 콩나물〉(1999), 〈아줌마〉(2000)에서 호흡을 맞췄던 정성주 작가와 오랜만에 의기투합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로 〈궁〉, 〈궁s〉, 〈장난스런 키스〉 등 줄곧 10대 취향의 드라마들을 만들어왔던 황인뢰 PD 또한 오랜만에 성인 로맨스물로 돌아왔다. 그중 〈빠담빠담〉과 〈발효가족〉, 그리고 〈아내의 자격〉은 같은 시기 지상파 드라마들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만큼의 실험성과 완성도를 보여주었다.

〈빠담빠담〉은 고교시절 친구가 저지른 살인죄를 뒤집어 쓴 양강철(정우성)이 17년간 교도소에 복역하다 출소 직전 3일간의 귀휴를 나오는 데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 3일 동안 의사인 정지나(한지민)를 만나게 되고, 이후 강철에게 이상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출소 직전, 그리고 출소 후에도 수없이 죽음과 직면하는데 마치 마법처럼 그 순간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노희경 작가의 드라마들 중에서는 흔치 않게 판타지 장르의 색채가 가미된 작품이지만 그 효과는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한 진중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에 걸맞게 극단적이라도 해도 좋을 만큼 강렬한 연출 기법들이 동원되었다.

그림 5-1-8 JTBC <빠담빠담>과 <아내의 자격>



출처: JTBC 홈페이지 (<http://www.jtbc.co.kr>)

《발효가족》은 이강산(박진희), 이우주(이민영) 자매가 운영하는 한식당 ‘천지인’을 배경으로 이곳을 찾는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담았다. 조직폭력배 출신이었지만 장차 천지인 주방에서 일하게 되는 기호태(송일국)를 비롯해, 독거노인, 고아 등 피한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마치 김치의 발효와도 같은 숙성과정을 거쳐 마침내 가족을 이루는 과정을 그렸다. 매회의 에피소드를 다양한 김치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 형식상의 특이점이다. 한국인들에게도 낯선 다양한 김치들 및 그 조리과정과, 자연주의적인 영상미 또한 종래의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만나기 힘들었던 감흥을 선사했다.

《아내의 자격》은 아들 교육을 위해 사교육 열풍의 진원지 강남 학원가에 뛰어든 엄마 윤서래(김희애)의 이야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학원장의 남편이자 치과의사인 김태오(이성재)에게 마음이 흔들린다. 얼핏 자극적으로 보이는 사교육과 불륜이라는 소재이지만, 이 작품에서는 그 모두가 삶의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사색을 낳는 발화점들이다. 지식인들과 엘리트들의 허위를 꼬집는 블랙 코미디는 안판석 PD, 정성주 작가의 전작 《아줌마》보다 한층 날카로워졌으며 인물들은 생생한 현실감을 얻었다. 거기에 주·조연배우들은 물론 단역배우들까지도 한 치의 어그러짐 없는 연기를 선보여, 《아내의 자격》은 종편채널 최초로 4.0%의 기록적인 시청률과 함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상의 작품들이 언급한 대로 제작진들이 지상파에서 만든 드라마들과 다른 노선을 보여주었다는 점, 그리고 그 결과가 낫설 만큼 실험적이었다는 점은 특히 지상파 방송사들의 드라마 기획과 편성과 관련하여 시사 하는 바가 적지 않다 하겠다.

3 그 외 언급할만한 동향들

각색 드라마의 편수가 늘었다. 2011년 하반기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방영된 작품들 중 소설이나 만화, 혹은 기존의 드라마를 원작으로 삼은 것은 총 9편으로(〈지고는 못 살아〉, 〈해를 품은 달〉, 〈닥터 진〉 이상 MBC, 〈광개토태왕〉, 〈각시탈〉 이상 KBS, 〈시티헌터〉, 〈무사 백동수〉, 〈뿌리 깊은 나무〉, 〈바보엄마〉 이상 SBS), 지난 해 같은 시기 총 6편에서 증가추세를 보였다. 거기에 종편채널에서 방영된 각색 드라마 세 편까지 더하면(〈러브 어게인〉, 〈친애하는 당신에게〉 이상 JTBC, 〈프로포즈 대작전〉 이상 TV조선) 전년도 대비 두 배에 달한다.

각색 드라마들의 대두는 오리지널 스토리의 한계와 비용을 극복하고 성공한 원작이라는 안정적인 기반 하에 화제성까지 끌어올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드라마가 성공할 경우 만화와 소설 등 원작 콘텐츠의 동반상승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 이 시기 〈해를 품은 달〉, 〈뿌리 깊은 나무〉, 〈각시탈〉 등의 인기몰이에 따라 향후에도 각색 드라마의 증가추세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8월 14일, KBS 2TV 월화 미니시리즈 〈스파이 명월〉을 촬영하던 중 주연여배우인 한예슬이 제작현장을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일을 계기로 이른바 ‘생방 촬영’이라 불리는 드라마 제작 시스템이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그해 국정감사장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드라마 편성 시기와 관련한 토론이 이어졌으나 현실적인 한계를 재확인하는데서 그쳤다.³⁾ 종편채널 MBN에서는 예술대학 뮤지컬학과 학생들의 꿈과 사랑을 담은 드라마 〈왓츠업〉(송지나 극본, 송지원 장미자 연출)을 사전제작으로 방영하기도 했으나 저조한 시청률로 별다른 반향을 낳지 못하였다.

시즌제 드라마와 같은 선진적인 제작 기법에 대한 요구는 이 시기에도 대두되었다. 해외에서 시즌제 구성이 일반적인 장르 드라마의 강세와 더불어 더욱 두드러졌는데, 메디컬 드라마 〈골든 타임〉은 방영 초기부터 이와 관련한 요구들이 거셌다.⁴⁾ 실제 이 시기 방영작품 중 KBS 2TV의 월화 미니시리즈 〈드림하이 2〉는 우리나라 제작환경에서 흔치 않게 시즌제를 관철해내기도 했으나, 박진영이 맡은 양진만 캐릭터를 제외하면 인물들의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한데다, 전편에 미치지 못하는 완성도로 아쉬움을 남겼다. 향후에도 시즌제 드라마 성공의 관건은 캐스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다양한 포맷의 드라마로 시청자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신진 작가와 연출가들에게는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단막극과 연작 드라마의 시도 또한 이어졌다. KBS는

3) 이데일리(2011.10.4). ‘한예슬 파문’ 드라마 사전 제작 국감서도 ‘도마 위’ - 김을동 의원 “방송사 편성 빨리 해야” vs KBS “제작사가 오히려 꺼려”.

4) 스포츠조선(2012.9.27). “최고의 엔딩” 호평... ‘골든타임’은 왜 시즌2 요청을 만나.

2010년 이후 정통 단막극 프로그램인 <드라마 스페셜>과(2012년 현재 3시즌 째), 6~8부작 이내의 중편 미니시리즈를 제작·방영하는 <드라마 스페셜 연작 시리즈>(2012년 현재 2시즌 까지 완료)를 꾸준히 선보이는 한편, 2011년 12월에는 2년 만에 <TV 문학관>을 부활하여 고전 원작의 <광염 소나타>,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엄지네> 세 편을 방영하기도 했다.

또한 MBC에서도 2011년 10월 15일부터 매주 1회 토요일에 방영된 <심야병원>을 통해 한때 명맥이 끊겼던 움니버스 연작 드라마의 실험을 이어나갔다. 5명의 작가와 5명의 연출가가 각각 2회분의 에피소드를 제작하는 준 단막극의 시스템으로, 미스터리 스릴러와 메디컬을 결합한 장르 드라마의 시도 또한 박수를 받을 만 했으나 심야 편성(24시 20분 방영)의 한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거기에 그 시도가 단발성으로 그쳤다는 점 또한 아쉬움을 남겼다. 결론적으로 2012년 현재 지속적으로 단막극 혹은 연작 드라마 포맷을 제작·방영하는 방송사는 KBS가 유일한 상황이다. “단편영화는 미래의 영화다.”라는 영화학자 앙드레 바쟁(Andre Bazin)의 말은 텔레비전 드라마에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바, 타 방송사들에도 미래의 드라마를 위해 한층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제 2 절

예능/오락 프로그램

2011년에서 2012년 상반기 사이에 예능 프로그램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흐름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흔들릴 줄 모르던 국민 MC 강호동, 유재석의 양강 구도가 강호동의 잠정 은퇴로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는 것도 특기할 만한 일이고 밖으로, 밖으로만 내몰던 리얼 버라이어티들이 하나 둘씩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도 변화라면 변화다. 세상을 뒤흔들만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가슴이 뭉클해지는 감동도 있었고,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신나는 축제의 장도 열렸다. 반면 한때 예능의 판도를 주도했던 MBC 예능의 침체라는 인짱은 상황도 있었다. 물론 오랜 파업의 여파로 인한 부침이긴 하지만, 그 중 특별히 주목할 만한 몇 가지를 꼽아보도록 하자.

1 B급 문화 돌풍

요 몇 년 새 우리나라 전체를 통 틀어 가장 뜨거운 화젯거리는 뭘까? 아마도 메가톤급 히트를 기록한 싸이의 <강남 스타일>일 것이다. 이 부분에 감히 토를 달 사람은 없지 싶다. 2002년 월드컵 당시, 우리나라 축구팀의 꿈같은 4강 진출을 전 국민이 함께 기뻐하며 '살다보니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하고 감격해마지 않았었는데 그 후 십년이 흐른 2012년 올 여름, 급기야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 같은 사건이 벌어진

그림 5-1-9 B급 문화의 인기: 가수 싸이와 MBC <무한도전>



것이다. 이걸 기적이 아닌 다른 어떤 단어로 대체할 수 있을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고, 아무도 따로 준비하지 않았던 일이다. 단지 유튜브(YouTube)에 동영상 하나 올렸을 뿐인데 입소문을 타고 별다른 프로모션 하나 없이 세계 1위라니! 그렇다고 뜻하지 않은 <강남 스타일>의 대히트가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을 문화강국으로 만들어 줄 리는 없다. 그걸 잘 알면서도 매일매일 신기록을 경신중이라는 소식에 팬스레 내 식구의 성공처럼 기세가 등등해지는 것을 어찌랴. 더구나 자국 언어로 영국과 미국 차트를 휩쓸었다는 사실이 더더욱 감격스럽기만 하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고 넘어가면 서운할 일 한 가지가 있으니 유튜브 조회수 무려 5억을 넘어서리라 예상되고 있는 <강남스타일>, 이 뮤직 비디오에 MBC 대표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의 주역 유재석과 노홍철이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얼핏 보면 한낱 카메오(cameo)에 불과하지만 이 둘의 등장이 우연이 아니다. 여간해선 본인의 프로그램이 아니면 출연도, 도움도 주지 않는 유재석이 이 뮤직비디오에 출연했다는 것이 처음엔 의외였는데 생각해보니 보은 차원의 출연이지 싶다. 2011년 <무한도전> 서해안고속도로 가요제에서 싸이와 노홍철이 '철싸'라는 팀을 결성해 로큰롤 스타일의 <흔들어주세요>를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싸이 그는 반복적인 후렴구에 다듬어지지 않은 느낌의 노홍철의 랩을 가미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용 음악을 만들어냈다. 무엇보다 의미가 있는 건 음악 무대를 대표하는 B급 문화와 방송을 대표하는 B급 문화의 극적인 조우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싸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웃자고, 재미있자고 만들었다는 뮤직비디오 <강남 스타일>에 유재석과 노홍철이 참여할 충분한 명분을 제공했으니 이처럼 극적인 인연의 시작이 또 어디 있겠나. 게다가 그로 인해 노홍철이 싸이의 인기를 따라 순식간에 국제적인 스타로 급부상했으니 세상사 참 재미있는 일이랄 밖에. 예능 프로그램을 보느라 TV 앞에 앉아 있는 걸 한심하게 여기는 이들도 꽤 있다지만 보라, 잘 만든 예능 프로그램 하나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나라도 정치인도 못 해낸 일을 연예인과 음악과, 예능 프로그램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것이다. 그것도 B급 문화의 선두주자인 <무한도전>이 말이다.

그런데 한편 신기한 건 늘 바르고 모범적인 배려형 진행으로 국민 MC 소리를 듣고 있는 유재석이 다른 한쪽으로는 B급 문화를 이끌고 있다는 점이다. KBS 2TV <서세원쇼>의 한코너 '토크박스'가 한참 인기를 끌 무렵만 해도 유재석은 패널리나 리포터 역할에 만족해야 했다. 그러나 오랜 무명 시절을 겪으며 좌절하지 않고 겸손한 이미지를 계속 유지한 끝에 남을 놀리기도 하지만 자신은 더 망가질 줄 아는 MC로, 때로는 초대 손님과 함께 신나게 노는 진행자로 자신의 진행 스타일을 특화한 유재석이 아닌가. 그런 유재석과 노홍철이 <강남 스타일> 하나로 글로벌 스타로 발돋움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것은 B급 문화라기보다는 비주류, 마이너 감성이라 할 수 있

는 MBC <황금어장> '라디오스타'의 약진이다. 장기 파업 이후 침체 일로에 놓인 MBC 예능 중에서 파업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유일한 프로그램이 '라디오스타'다. 한 때는 '무릎팰도사'에 얽혀사는 입장이었으나 강호동의 퇴진 이후에도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호흡이 긴 장황한 이야기들보다는 짧게 툭툭 치는 촌철살인의 토크에 집중해 당당히 메인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어느새 또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한 B급 문화. 전 세계가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경제 불황 등,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일까? 지나치게 진지하지 않으면서 누구라도 쉽고 가볍게 다가갈 수 있는 B급 문화가 그 어느 때보다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국가와 인종을 초월한 범세계적인 소통을 B급 문화가 주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야 반갑지만 혹시라도 B급 문화가 떴다고 해서 우르르 그 방향으로 쏠리는 현상이 일어날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한다. 표현의 자유는 지켜가되 중심을 잃지 않는 비판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2 시끌벅적한 집단 토크쇼에서 들어주는 토크쇼로

언제부터인가 토크쇼가 없는 TV는 상상도 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권불십년(權不十年)이라더니 SBS <야심만만> 이후 평생을 장악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난상토론식 집단 토크쇼가 주춤해진 반면 2010년 방송을 시작한 KBS 2TV <승승장구>를 시작으로 초대 손님의 생각을 진중하니 들어주는 방식의 토크로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화두 또한 한때 기승을 부렸던 폭로전이나 호통 개그에서 소통과 치유, 공감, 격려해주기, 위로

그림 5-1-10 KBS 2TV <승승장구>와 MBC <놀러와>



출처: KBS 홈페이지(<http://www.kbs.co.kr>), MBC 홈페이지(<http://www.imbc.com>)

받기로 차차 바뀌게 됐는데 억지웃음을 유발하는 장난스런 이야기들보다는 공감과 위안이 있는 진심어린 이야기들이 반응을 얻게 된 것이다.

포맷 교체에도 불구하고 크게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KBS2 <해피투게더3>와 MBC <놀러와>의 현재가 이런 상황을 여실히 입증한다. <해피투게더3>는 목욕탕에서 스튜디오로 자리를 옮기는가하면 KBS2 <개그콘서트>의 인기 개그맨들을 대거 투입시키고 야식 코너를 신설하는 등 여러모로 대중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딱히 좋은 반응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제목을 <유재석 김원희의 놀러와>에서 <공감토크쇼 놀러와>(이하 <놀러와>)로 바꾼 <놀러와> 역시 심기일전 재도약을 위해 애를 쓰는 중이다. 시청률이 3.0%대로 내려앉는 등 최악의 상황을 맞아 폐지까지 거론되는 굴욕을 겪은 후 <놀러와> 제작진이 야심차게 준비한 비장의 카드는 ‘남자들의 진솔한 수다’를 표방한 ‘트루맨쇼’와 뮤지션과 그 팬들을 초대해 꾸미는 ‘방바닥 콘서트 보고 싶다’의 두 코너 이다. 과연 <놀러와>는 지난날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그런가하면 대중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지 못한 채 아날로그형 진행으로 일관했던 MBC <주병진 토크 콘서트>와 그 뒤를 이어 긴급히 편성된 <주얼리 하우스>는 안타깝게도 연달아 조기 폐지되는 비운을 겪어야만 했다. 요즘 토크쇼의 트렌드는 초대 손님의 인생을 하나의 드라마로 완성시키는 구도라라고 할 수 있다. <주병진 토크 콘서트>와 <주얼리 하우스>는 이 같은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고, <놀러와>는 패널은 여럿이었으나 전적으로 유재석, 김원희 두 MC에게만 의존하다보니 드라마틱한 구성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또한 SBS <강심장>이며 MBC <세바퀴> 같은 종합 선물상자 스타일의 토크쇼들도 이 같은 흐름에 따라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월요강자였던 <놀러와>가 고전하는 사이 이 자리를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와 KBS2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가 비집고 들어왔다. 여럿이 모여 한 가지 주제를 두고 떠들기 보다는 공감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건 그만큼 우리 사회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는 증거라 할 수 있겠다. 특히나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이하 <힐링캠프>)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어 하는 인간 본연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으며 대중의 호감을 얻어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따분해지기 쉬운 원톱 토크쇼라는 태생적 한계를 ‘고객 맞춤 고민 치유’에 초점을 맞춰 극복해낸 것이다.

“우리는 게스트가 단 한 분이잖아요? 속 깊은 이야기들을 푼심 있게 장시간 밀어붙이고 싶지만 그 순간 채널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경쟁 채널(KBS2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MBC <놀러와>)에서 상대적으로 더 시끌벅적 활기찬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채널이 한 번 돌아가면 돌이키기 힘들죠. 두 프로그램 모두 색깔이 명확하고 다 좋은 프로그램들이기에 부담이 더 커요.” 담당 CP의 말처럼 시청자는 물론 말하기가 직업인 MC들에게도 누군가의 말을 진중하게 들어주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조급증이 심하기로 소문난 MC

그림 5-1-11 SBS <힐링캠프>와 KBS 2TV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출처: SBS 홈페이지(<http://www.sbs.co.kr>), KBS 홈페이지(<http://www.kbs.co.kr>)

이경규로서는 더욱이 참을 ‘인(忍)’자를 여럿 새기지 않았을까?

그러나 사실상 그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거듭났다고 봐야 옳다. 배우 차태현이 공항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힐링캠프>에서 털어 놓았을 때 시청자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담담한 어조로 아무렇지도 않게, 심지어 너털웃음을 지어가며 얘기하는 고통의 시간들이 너무 엄청나기에 다들 반신반의했는데 언제 봐도 밝고 유유자적인 모습들이 그런 심적 고통들과는 한참 거리가 멀어 보였기 때문일 게다. 힘들어도 워낙 표를 안내는 성품인지라 최측근만이 힘든 나날을 함께 했지 싶다. 그런데 그날 그 말을 듣고 있던 이경규도 본인 또한 같은 질병을 앓고 있음을 고백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이 스스로도 힐링을 경험했기 때문이리라. 아마 시청자들 중에도 자신들의 일상에 타인이 털어 놓는 고민을 대입, 힐링을 얻은 이들이 꽤 있지 싶다.

경험담이 보다 많은 공감대를 만든다고 해도, 그렇다고 무조건 초대 손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으라고 강요해서는 아니 될 일이다. 편안한 분위기와 환경이 제공되어야 모든 것을 내려놓은 무장 해제된 상태가 가능해지지 않겠나. 그래야 보다 진솔한 토크가 가능할 테니까. 어쨌거나 그런 공감대 덕에 <힐링캠프>의 출연 가능한 게스트 직업군은 점차 넓어졌고 그에 힘입어 현재 대선 후보인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사람 모두가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③ 멘토(mentor)형 토크쇼의 등장

무릇 청년 실업 백만 시대라고 한다. 주부가 장바구니로 체감하는 물가 오름세가 놀랍다 못해 섬뜩할 지경이나 부모님에게 이런저런 아쉬운 소리를 해가며 돈을 타서 써야 하는 청년들의 고단함은 오죽할까. 취업을 앞둔 청년들의 한숨소리는 깊어만 간다. 내 꿈은

무엇인가? 내 꿈은 과연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내 인생은 왜 이리도 힘겨운 것인가. 혼돈의 이 시대를 사는 청년들이 스스로에게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지 싶다.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 외에 외모라든가 배경이라든가, 예상치 못했던 장애물들이 불쑥 불쑥 나타나니 젊은이들로서는 당황스러울 밖에 없다. 비싼 등록금 덕에 이미 빚은 산더미고 취업에는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는, 벼랑 끝에 내몰린 젊은이들의 고민이 어느 정도 일지 충분히 짐작이 간다.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기계발서’들을 뒤적여 봐도 인생은 어차피 누구에게나 숙제라느니, 인생은 무슨 사건이 벌어졌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벌어진 사건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다느니, 일단 듣기에는 그럴 듯하지만 뜬 구름을 잡는 양 막연하기 마련이다. 이처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절박한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KBS2 <이야기쇼 두드림>과 tvN <스타 특강쇼>는 아쉬우나마 문제 해결을 위한 퍼즐 한 조각을 제공한다. 매회 멘토가 되어줄 인물을 섭외해 그들이 성공하기까지 겪어야 했던 고난이나 일화, 각오 등을 들려주며 젊은이들의 삶을 위로하고 격려한다. 따라서 겉모양새는 기존의 토크쇼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강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확연히 차별된다. ‘멘토’의 사전적 의미는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이자 스승이다. 자신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인물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했는지, 어떠한 노력을 이어왔는지 그 사연을 들어봄으로써 청년들은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돌아보며 또 다른 인생관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누구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자신만의 팁 하나쯤은 있는 법, 고난을 극복해낸 스타를 초대해 인생이라는 영킨 실타래를 풀어낼 수 있는 실마리를 얻어 보자는 것이다. 스타의 생생한 경험담을 듣는다고 봉착한 난제들이 시원스레 해결될 리는 없지만 그나마 갈증해소는 좀 되지 않을까 싶다. 그중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스타 특강쇼> 10회 강사 박신양이 던진 질문은 특히나 가슴에 와 닿는 교훈이었다. 너나 할 것 없이 한 해가 시작될 때마다 만사형통하세요, 또 한 해를 마무리할 때마다 어김없이 내년에는 가내 두루 평안하시길 바라요, 등등 듣기 좋은 덕담을 술하게 주고받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라. 세상사 모든 일이 바라는 대로 잘 풀려갈 리가 없지 않은가. 그저 한낱 바람일 뿐. 우리가 고대하는 행복한 시간들이 내 것이듯 힘겨운 시간들 또한 내 삶의 일부라는 것을 선선히 받아들이는 게 옳다. 그 시간들을 죄다 부정한다면 인생의 반 이상을 고스란히 흘려버리는 결과가 되니까. 당연히 힘들지! 하는 생각, 뭔가 반전이면서 마음에 와 닿았다.

이처럼 이들 프로그램에서 들려주는 강사들의 진솔한 얘기는 단순히 스타들이 어느 토크쇼에 나와 눈물 콧물 흘려가며 자신이 겪어야 했던 고난을 토로할 때와는 사뭇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방청을 원하는 이들의 수도 날로 늘고 있다는데 앞으로 또 어떤 멘토들이 등장해 어떤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려줄지 기대가 된다.

4 일대일 토크쇼의 부활

기억을 되짚어 보면 과거의 토크쇼들은 <자니윤쇼>를 필두로 대부분이 일대일 토크쇼였다. 메인 MC에다가 기껏해야 도움을 줄 보조 진행자 한두 명 정도가 더 있었다. 그러다 다수의 집단 MC 체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서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서로 폭로와 비방을 일삼은 덕에 불명예를 짊어진 지상파 토크쇼들이 있다. 그와는 달리 케이블 방송이나 종편 쪽에서는 자연스럽게 초대 손님으로부터 이야기를 꺼내는 일대일 토크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일대일 토크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초대 손님이 마음을 열어야겠다고 결심하게 만드는 능력 있는 MC이다. 신뢰할 수 있는 진행자가 오롯이 초대 손님의 이야기에 집중해줌으로서 자극보다는 공감을 자아내는 저공해 토크쇼로서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이다.

주 5일 방송되고 있는 tvN <백지연의 피플 인사이드>와 지금은 종영한 JTBC <박경림의 오! 해피데이>가 그 좋은 예다. MC와 초대 손님이 일대일로 한 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든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풍성한 이야깃거리를 가진 초대 손님을 섭외하는 게 관건이겠지만 그보다는 어떤 이야기라도 수월하게 끌어낼 수 있는 MC의 세상을 꿰뚫어 보는 시선이 무엇보다 필요한 법이다. 여러모로 경험이 풍부한 백지연과 평소 친한 사람 많기로 소문난 박경림은 누구와도 속 깊은 대화를 나누는 능력을 발휘하면서 시청자의 마음 속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일대일 토크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몇 해 전 불과 17회 만에 막을 내린 KBS2 <박중훈 쇼, 대한민국 일요일 밤>(이하 <박중훈 쇼>)를 보면 알 수 있다. 특급 스타 장동건을 비롯해서 온갖 화려한 스타들이 의리 때문에 줄줄이 이 토크쇼를

그림 5-1-12 일대일 토크쇼의 등장과 인기



그림 5-1-13 JTBC 박경림의 <오! 해피데이>



출처: JTBC 홈페이지 (<http://www.jtbc.co.kr/?doc=jtbc|header|logo>)

찾았지만 반응은 참담하기만 했다. <백지연의 피플 인사이드>와 <박경림의 오 해피데이>는 <박중훈 쇼>와 같은 진행 방식을 택하고 있지만 초대 손님이 특급 스타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전혀 다르다.

사실 우리가 어디에서 그런 속 깊은 얘기들을 들을 수 있겠는가. 보조 진행자며 방청객 하나 없이 MC 홀로 이끌지만 그렇다고 심심하거나 밋밋하지 않다. 오히려 단출하기에 서로 튀기 위해 애쓰는 말장난 없이 인물 자체에 대한 심도 높은 질문과 대답이 오갈 수 있지 싶다. 그런 의미에서 일대일 토크쇼의 진수를 선보이며 대한민국 토크쇼의 한 획을 그었던 장본인 주병진의 모처럼의 재기 <주병진 토크 콘서트>가 무위로 돌아간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준비가 덜 되어 트렌드 읽기에 실패했다면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다시 돌아오면 좋겠다. 모든 토크쇼가 교육적이고, 윤리적이고 삶의 지혜를 가져다 줄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만 방송이 끝났을 때 마치 책을 읽으며 밑줄을 긋듯이 마음에 남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5 19금 쇼의 과감한 등장

올해 들어 TV가 '19금' 면에서 놀랄 만치 스스럼없어졌다. 국내 제작 드라마에서는 언감생심 꿈도 못 꾸고, 외화에서 주인공들이 입맞춤이라도 한번 할라치면 화면이 느닷없이 새까맣게 바뀌던 시절을 살아본 나로서는 솔직하다 못해 파격적인 TV 속 변화들이 당황스러울 지경이다. 그렇다고 노골적인 베드신 연출이라든가 대담한 노출을 일삼아 거북하다는 얘기는 아니다. 사람들의 인식이며 성을 대하는 잣대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솔직하게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얘기다.

인기리에 방송 중인 SBS <신사의 품격>에서는 남자 주인공 김도진(장동진)이 짝사랑하는 서이수(김하늘)를 두고 다른 여자와 동침을 하기도 하고, tvN <로맨스가 필요해>에서

그림 5-1-14 tvN의 <SNL 코리아>와 6회 호스트 박진영



출처: tvN SNL코리아(http://snl2.interest.me/Index/22/Board/View?b_seq=5)

는 처녀들이 자신의 성생활이며 성적 취향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드라마야 그렇다 쳐도 예능 프로그램에서까지 19금 발언을 듣게 될 줄이야 그 누가 짐작이나 했겠는가. KBS2 <대국민토크쇼 안녕하세요> 같은 고민 상담 프로그램에서조차 아버지가 딸에게 과하게 성교육을 하려고 드는 게 고민이라는 민망한 소재가 공연연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가 유난히 성교육에 집착했던 까닭을 듣는 순간 모두가 공감을 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예전 같으면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상황이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파격을 거론할 때 tvN <SNL 코리아> 박진영 편이 ‘우리 재혼했어요’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발칙한 전개를 TV에서 마주하게 되다니! 그러나 박진영과 신은정이 주고받은 감칠맛 나는 대사들을 이 자리에 옮겨 쓸 수도, 누군가에게 그대로 전하지도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개적으로 성적인 단어를 발설하는 건 점잖지 않은 일이라고 교육받은 세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학교나 가정에서 딱 부러지게 그리 가르친 것도 아니었다. 목이 마르면 물을 찾듯이 본능적으로 그러는 편이 옳다고 알고 있었을 뿐. 박진영의 시도가 좋은 반응을 얻어서일까? <SNL 코리아>는 ‘시즌3’를 맞아 19금 개그의 달인 신동엽을 영입해 본격적인 19금 예능을 선보이게 됐다.

그런가하면 <놀러와>가 새롭게 선보인 19금 코너 ‘트루맨쇼’도 주목할 만하다. 기존의 <놀러와>가 가족 모두가 무난하게 볼 수 있는 쇼였다면, 토크의 주체와 주 타깃을 성인에게로 돌린 ‘트루맨쇼’. 일단 고정 패널 김응수와 권오중, 박재범의 신선한 기용이 돋보이고, 19금 소재를 누가 들어도 불편하지 않게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6 오디션 프로그램의 인기는 계속 된다

이내 찾아들겠지 싶었던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의 인기가 해가 바뀌어도 식을 줄을 모른다. 아니 점점 높아만 간다. 사실 2009년 Mnet <슈퍼스타 K> 첫 시즌 출발 당시,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오디션 프로그램이 꽃을 피울 수 있을지 의심하는 눈초리가 꽤 많았다. 도전자에게는 실력 있는 전문가에게 평가받을 기회를, 방송사로서는 뛰어난 인재를 찾아 낼 기회가 되어줄, 서로에게 윈윈인 프로그램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간 그다지 인기가 없었던 게 사실이니까. 물론 오락 프로그램 안에 간간히 단편적으로 존재하긴 했어도 연속성을 갖춘 프로그램은 보기 어려웠다. 실제로 이미 KBS <서바이벌 스타오디션>(2006) 이라든지 MBC <쇼바이벌>(2007) 등이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한 채 스러진 이력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슈퍼스타 K>는 그 같은 우려를 딛고 ‘시즌1’은 70만 명, 2010년의 ‘시즌2’는 그 두 배의 인원이 도전하는 기대이상의 반응을 얻으며, 케이블 채널로는 드물게 두 자리 수 시청률을 올리며 성공가도를 걷기 시작했다. 그러니 2011년 ‘시즌3’, 2012년 ‘시즌4’가 또 다시 열리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다. 더욱이 ‘시즌3’ 우승자 울랄라세션과 2위를 차지한 버스커 버스커의 눈부신 성공으로 <슈퍼스타 K>의 위상은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성공을 발판으로 MBC <위대한 탄생>을 비롯한 여러 오디션 프로그램이 우후죽순 선을 보이게 됐는데 이 같은 열풍의 비결을 두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지만 서바이벌의 재미를 우리네 정서에 맞게 잘 우려냈다는 점이 가장 큰 인기 비결이 아닐까? MC와 심사위원의 구성, 여러 단계의 예선을 거친 결선, ARS를 통한 투표로 탈락자를 가리는 방

그림 5-1-15 오디션 프로그램의 열풍 지속



식까지 외국 프로그램의 포맷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만 내용에서만큼은 차별되는 부분이 확인하기에 시청자들이 주목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모양새는 외국 프로그램일지언정 우리나라에 맞게 한국형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거듭 났다는 얘기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일반인의 대거 참여가 주효했지 싶다. 생생한 실제 사연들이 붓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다 보니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버금갈 감동을 줄 수 있었던 것이다. 거기에 촌철살인의 심사평까지 더해져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장면들이 매번 빛어지고 있지 않은가. 물론 감동을 강요하는 게 아니냐며 마뜩지 않아하는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이다. 실력보다 사연에 관심이 쏠리는 바람에 객이 전도된 느낌이라는 시청자들도 있고, 인정에 흔들리는 공정치 못한 심사에 불만을 갖는 시청자들도 있다. 하지만 결선에서 시청자들의 문자 투표가 시작되자 벌어진 기현상만 봐도 오디션 프로그램의 필수조건이 ‘情’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실력이 뛰어난 도전자에게 투표하는 게 아니라 탈락 위기의 도전자에게 투표하는 시청자들이 생겨났으니 말이다.

가장 큰 인기 비결은 원석과도 같은 도전자들의 발견이다. 감탄할 만한 실력과 지치지 않는 열정, 그리고 근성을 갖춘 도전자들의 등장이 시청자들을 몰입하게 만드는 것이다. 흔히 봐온, 기획사를 통해 가공된 연예인들에게 식상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내가 문자 투표로 직접 심사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시청자를 흥분시킨다. 마침 스마트폰 전성 시대라는 점도 오디션 프로그램의 열풍에 큰 몫을 했다. 오디션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날이면 트위터(Twitter)나 페이스북(Facebook)을 비롯한 각 소셜 네트워크의 타임라인(time-line)은 각자 지지하는 도전을 편드는 내용으로 도배가 되곤 한다. 굳이 TV 앞에 앉아 있지 않아도 현재 생방송 상황을 훤히 꿰뚫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출연자끼리 죽기 살기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따뜻하게 포용하는 살가운 사이가 되는 걸 보면, 다소 억울한 탈락이지 싶어도 웃으며 결과에 흔쾌히 승복하는 걸 보면 오디션 프로그램은 그저 서바이벌 리얼리티가 아니라 성장 드라마임이 분명하다.

그림 5-1-16 MBC <위대한 탄생>과 KBS 2TV <불후의 명곡>



출처: MBC 홈페이지(<http://www.imbc.com>), KBS 홈페이지(<http://www.kbs.co.kr>)

어쨌거나 <슈퍼스타 K>로 시작된 서바이벌 오디션 열풍은 MBC <위대한 탄생>에서 2011년 겨울 SBS <K팝 스타>로 이어졌고 그 인기의 여파로 Mnet <보이스 코리아>와 tvN <오페라 스타>와 <코리아 갓 탤런트> 등 다양한 경쟁 프로그램들이 다수 등장했다. 그리고 거기에 일반인이 아닌 기존 가수들이 자웅을 겨루는 MBC <나는 가수다2>와 KBS2 <블후의 명곡2>까지 가세해 오디션 열풍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오디션 프로그램이란 오디션(면접을 포함해 가수나 배우 등을 선발하는 실기시험)과 프로그램(그것을 방송프로그램화한 것)을 합한 용어다. 따라서 오디션 프로그램은 실제 오디션과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는 여기에 방송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통 가상으로 만들어지는 방송 프로그램과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오디션이라는 실제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뜨거운 인기 못지않게 문제점도 많이 대두되고 있다. 그중 하나를 꼽아보면 아무래도 과도한 경쟁을 유발시킨다는 점이다. 사실 우리 사회 자체가 엄청난 경쟁사회고 또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인데, 경쟁 사회 속에서 지친 심신을 위로받고 위안을 얻어야 하는 게 TV이거늘 그 TV에서조차 또 다른 치열한 경쟁의 장들을 봐야 하고 TV 자체가 경쟁 구도를 오히려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 온다는 점이 아쉬울 수밖에 없다.

오디션 열풍에 힘입어 노래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오디션 프로그램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간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아나운서 채용과정을 과감하게 공개함으로써 아나운서의 꿈을 간직했던 사람들에게 기회의 문을 연 MBC <신입사원>이며 연기자를 선발하는 SBS <기적의 오디션>, 그리고 52세 이상의 연령대에게 꿈과 희망을 준 <남자의 자격>의 ‘청춘 합창단’도 있다. 또 모델들의 경쟁 <도전 슈퍼모델>과 의상 디자이너를 뽑는 <프로젝트 런웨이>도 해마다 계속돼 2012년에도 여전히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청춘 합창단’을 보면 기회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통감하게 된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자신의 재능을 누군가에게, 특히 전문가에게 선보이고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우선 큰 기회이겠고 방송사에서는 인재를 발굴할 발판이니 일거양득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2012년에는 ‘청춘 합창단’에서 범위를 넓혀 ‘패밀리 합창단’을 만들어 전 세대를 아우르고 있다.

하지만 시청률을 목표로 하는 방송에서 경쟁의 공정성이 원천적으로 가능한지, 1등만 기억하는 사회를 더 양산하고 있는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요즘 시청자들의 눈은 누구보다 예리하다. 혹여 연출에 의한 조작이 조금이라도 눈에 띈다면 방송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공감할 만한 평가가 내려지도록 특별히 조심해야 옳다. 심사위원의 자질이라든가 태도, 심사 방식은 계속 진화해왔는데 특히 <K팝 스타>, 올리브 <마스터셰프 코리아>의 경우 심사위원들을 향한 인기와 관심이 출연자들 못지않게 뜨거웠다.

7 MBC 예능은 언제쯤 다시 살아날까?

2012년 상반기 MBC 예능은 앞으로 두고두고 회자가 될 암울한 시기가 아닐까 한다. 1월 말부터 무려 반년이 넘도록 계속된 MBC 총파업의 타격이 가장 큰 건 뭐니 뭐니 해도 예능 프로그램이다. 드라마야 외주 제작이 태반이다 보니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가뜩이나 침체일로였던 예능 프로그램의 경우 제작진의 부재로 인해 <우리들의 일밤>의 한 코너를 외주에 제작을 맡기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 그 결과 정체가 모호하고 완성도가 떨어지는 프로그램들이 속속 등장했으니 시청자의 철저한 외면은 당연지사 아닐는지. 따라서 애국가 시청률이라는 굴욕을 경험한, 케이블과 지상파의 평준화에 일조했다는 비난까지 받게 된 MBC 예능 프로그램. 과연 하반기엔 살아날 수 있을까? 다행히 강호동의 복귀로 '무릎팍도사'가 목요일 밤으로 돌아올 예정이라 하고 포맷을 확 바꾼 <놀러와> 또한 차차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니 변화를 기대해도 좋지 싶다.

제 3 절

교양/다큐멘터리

1 들어가며

2011년에서 2012년 상반기 교양 프로그램은 특히 다큐멘터리 부문에서 성과와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다큐멘터리를 중심으로 몇 가지 주요 특성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 여전히 대형 다큐멘터리의 제작과 시청자들의 호응이 이어졌다. 2007년 KBS의 <차마고도> 이후 각 방송사들은 경쟁적으로 대형 다큐멘터리를 기획하고 시리즈물을 제작하였다. 이들 다큐멘터리들은 감동과 재미를 동시에 선사하여 시청자들의 호응을 받으며 높은 시청률을 보였다. 그런 가운데 MBC의 '지구의 눈물' 시리즈가 <남극의 눈물>을 최종편으로 마무리되었고, SBS의 '최후의 ~' 시리즈도 <최후의 제국>로 올해 마무리될 예정이다. 따라서 MBC와 SBS가 내년에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할지 기대가 된다. 아마도 대형 다큐멘터리의 제작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초에 이미 KBS가 2012년 4편의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총 40여 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MBC와 SBS도 이에 못지않은 기획을 고심하고 있을 것이다. 한편, 다큐멘터리에 대한 투자액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심지어 MBC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남극의 눈물>에 25억 원을 투자한 바 있다. 이것은 프롤로그 편과 본편 방영으로 인한 광고수익, 극장수익, DVD 판매수익, 해외수출 등 일련의 수익창출구조가 어느 정도 정립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한국의 다큐멘터리가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을 통해 진화하고 있다. 2007년 <차마고도> 이후 제작된 대형 다큐멘터리의 소재를 보면 대부분 미지의 자연이나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이 많았다. 이런 종류의 다큐멘터리가 가질 수 있는 위험은 이미 다른 나라나 방송국에서 다룬 소재를 재탕하기 쉽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선보였던 다큐멘터리들은 이제까지 다루어지지 않았던 소재들을 발굴하여 감동과 아름다운 영상으로 전달함으로써 그런 위험들을 극복했다. 또한, BBC와 NHK가 3인칭 관찰자 시점을 사용하는 반면 한국 다큐멘터리는 1인칭 관찰자 시점 혹은 주인공 시점을 채택하는 독특한 서사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평가⁵⁾도 있다. 그래서 한국 다큐멘터리는 시청자들에게 제작진과 함께 현지로 관광이나 답사를 떠난 듯한 기분을 선사하여 더 많은 공감을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해외의 유수의 방송사들과 차별화되는 독특한 한국형 다큐멘터리 형식을 만들어냄으로써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세계 최초라 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 장르를 넘나드는 이색적인 기획, 새로운 기술의

5) 고재열(2011, 12, 6). 톤드라는 잊어라, 이번엔 '최후의 태평양'이다, 『시사인 커버특집 221호』.

활용 등 여러 모양의 시도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국내 다큐멘터리가 어떻게 진화될 지 기대된다.

셋째, 한국 다큐멘터리가 세계 시장에서 점점 인정받으며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2011년에서 2012년 상반기는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 작품이 수상을 통해 많은 인정을 받은 시기다. 이러한 가운데 다큐멘터리의 해외 판매가 주요 수출대상국이었던 아시아를 넘어 유럽, 북미 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해외에서의 인지도 또한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EBS <신들의 땅, 양코르>가 단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는 사상 최고의 액수로 미국과 계약을 체결해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2011년 12월 1일 종합편성채널의 개국으로 다큐멘터리의 종편 시대가 시작되었다. 2012년 상반기 기준으로 출범한지 반년 조금 넘은 종편의 다큐멘터리를 평가하기에는 이른 시기일 수 있어, 여기서는 현황 정도만 검토하도록 하겠다.

한편, 대형 다큐멘터리들에 비해 주목도는 떨어지지만 여전히 감동을 전달하는 다큐멘터리들이 꾸준히 제작되었다. 그 중에 ‘어머니’를 소재로 한 기획이 많았던 것이 특징일 수 있다. MBC <휴먼다큐 사랑> 시리즈는 2011년 어머니를 주제로 <엄마의 고백>, <엄마, 미안>, <엄마라는 이름>, <진실이 엄마>를 방영하여 이 시대의 어머니에 대해 돌아보게 하였다. EBS 역시 2011년 엄마를 소재로 한 <마더 쇼크>를 제작하였다. 대한민국 엄마들은 과연 행복할까라는 질문의 답을 찾아보겠다며 ‘국내 최초 모성 회복 프로젝트’를 표방했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사례와 과학적 검증을 통해 엄마의 자아와 행복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건전한 모성상을 제시하며 ‘대한민국 남녀평등상 최우수상’, ‘YMCA 좋은 방송 대상 우수작’ 등을 수상하였다.

최근 복고 열풍인 사회분위기를 반영한 듯, 1970년대와 80년대 초까지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배우 정윤희를 회고하고 섭외를 시도한 MBC <추석특집다큐-우리가 사랑한 여배우-카페 정윤희>도 신선했다. 또한, 숨을 소재로 한 <호흡> 역시 독특한 주제로 시청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이와 같이 신선하고 독특한 소재 발굴은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한국 다큐멘터리의 내용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다. 이외에도 휴머니즘과 나눔을 주제로 많은 다큐멘터리들이 제작되어 시청자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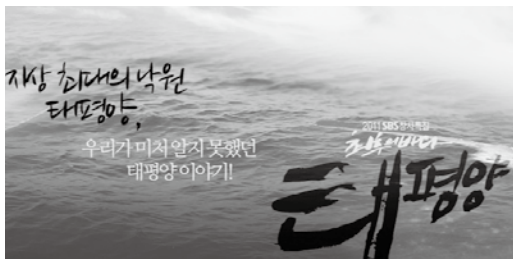
② 2011년~2012년 상반기 다큐멘터리 특성

1) 대형 다큐멘터리 제작과 인기 지속

2011년에서 2012년 상반기 동안 대작 다큐멘터리 제작은 계속되었고, 시청자들의 관심 또한 높았다. MBC의 창사특집 다큐멘터리 ‘지구의 눈물’ 시리즈는 2008년 <북극의 눈물>을 시작으로 <아마존의 눈물(2009~2010)>, <아프리카의 눈물(2010~2011)>을 이어갔다. 2011년에는 최종편인 6부작 <남극의 눈물(2011)>을 선보였다. 방영 때마다 장기간의 촬영과 엄청난 제작비,⁶⁾ 안성기, 김남길, 현빈, 송중기로 이어지는 인기 연예인의 내레이션, 국내외 영화제에서의 수상, 평균 10% 이상의 높은 시청률, 극장판의 흥행 등으로 수많은 화제를 낳았던 시리즈가 대단원의 막을 내린 것이다. 특히 <아마존의 눈물>은 한국 다큐멘터리 방송 사상 최초로 20% 이상의 시청률과 광고 완판으로 다큐멘터리가 정규방송만으로 제작비를 회수하는 이례적인 기록을 남기기도 하였다. <남극의 눈물>도 총 4부 가운데 3부의 광고가 모두 판매되면서 17억 5,000만 원 가량의 광고수익을 거뒀다. MBC의 ‘지구의 눈물’ 시리즈의 성공은 드라마와 예능이 대세인 요즘이지만 완성도 높은 명품 다큐멘터리는 시청자들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는 것과, 상품성 있는 콘텐츠로서 수익창출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SBS도 2011년에 총 제작비 13억 원, 제작인원 50명, 촬영기간 1년을 투자한 <최후의 바다-태평양>를 방영하여 ‘최후의 ~’ 시리즈를 이어갔다. 4부작으로 구성된 이 다큐멘터리는 태평양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바다에 기대어 사는 생물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⁷⁾ 비록 2010년 <최후의 툰드라(2010)>⁸⁾에 비해 화제성은

그림 5-1-17 SBS <최후의 바다, 태평양>과 <최후의 제국>



출처: SBS 홈페이지(<http://www.sbs.co.kr>)

- 6) <북극의 눈물> 20억 원, <아마존의 눈물> 15억 원, <아프리카의 눈물> 12억 원, <남극의 눈물> 25억 원.
- 7) SBS <최후의 바다, 태평양> 홈페이지 참조.
- 8) 사전조사 13개월, 현장취재 300여 일, 제작비 총 9억 원.

떨어졌지만, 역시 높은 시청률로 시청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이 시리즈도 2012년 말에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한 <최후의 제국>이 방영되었는데, 이병헌이 내레이션을 맡아 화제가 되었다. <최후의 툰드라>는 고희정이, <최후의 바다, 태평양>은 김주혁이 내레이션을 맡았다.

한편, KBS는 2007년 <차마고도>로 대형 다큐멘터리 제작의 포문을 연 선두주자였으나 2008년 <누들로드> 이후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011년 총제작비 9억 원을 투자한 <동아시아 생명 대탐사 아무르(2011)>와 8억 원을 투자한 <푸른 지구의 마지막 유산 콩고(2011)>를 선보이고 다시 대형 다큐멘터리 제작에 의지를 보였다. 더 나아가 2012년 3월에는 'K-DOC 2012'의 제작발표회를 열고 2년의 제작기간 동안 40억 원의 제작비를 들여 초대형 글로벌 다큐멘터리 4편을 제작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시대를 대표하는 지도를 통해 인류 문명사를 돌아보는 <문명의 기억 지도(2012)>, 패러글라이딩과 모터패러를 이용해 2,400km에 걸친 히말라야를 횡단하는 <이카로스의 꿈(2012)>, 오래된 물고기와 인간의 관계를 통해 인류 문명사를 조망한 <슈퍼피쉬>, 각 문화권의 최고의 공부를 찾는 <공부하는 인간-호모 아카데미쿠스>가 그것이다. 'K-DOC 2012'는 'KBS 다큐멘터리'를 줄인 것으로 K-POP처럼 다큐멘터리의 한류를 일으킨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EBS는 15개월의 제작기간, 10억 원의 제작비를 들인 <신들의 땅 앙코르>를 2011년 4월 방영했다. 세계의 불가사의 중 하나인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대사원과 자야바르만 7세 때 왕국의 수도로서 인구 100만 명의 당시 세계 최대 도시였던 '앙코르 톰'의 모습을 완벽하게 복원한 세계 최초 3D 입체 다큐멘터리이다. 또한, 2년에 걸친 기획 조사와 자문, 1년 2개월의 제작기간과 5억 원 제작비의 <생명, 40억 년의 비밀>도 방영되었다. 세계 곳곳의 화석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구 생명체의 역사를 추적하기 위해 6대주 16개국에서 촬영한 프로그램이다.

그림 5-1-18 MBC <남극의 눈물>과 EBS <신들의 땅, 앙코르>



출처: MBC 홈페이지(<http://www.imbc.com>), EBS 홈페이지(<http://www.ebs.co.kr>)

대형 다큐멘터리 제작은 오랜 제작기간과 많은 제작비와 인력이 투자되는 사업이다. 이와 같은 대형 다큐멘터리의 제작의 활성화는 프롤로그 편과 본방송의 높은 시청률로 인한 광고수익, 극장개봉과 DVD 판매수익, 해외수출 등 일련의 수익구조가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정부와 관련기관 차원의 제작 지원의 힘도 컸다.

2) 새로운 도전, 진화하는 다큐멘터리

2011년과 2012년 상반기에는 기존에 지상파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새로운 다큐멘터리 형식과 제작방법이 많이 시도되었다. 2011년에 방영된 MBC <타임>은 우리 생활문화와 풍속의 변화를 과거-현재-미래로 이어지는 시간(Time)의 흐름 속에 담아낸 TV 풍속 시리즈다.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의 기법과 장치, 감성모드와 코믹모드, 영화적 서사구조 등을 융합한 하이브리드 다큐를 표방하며 매회 새로운 시도가 이어졌다. 영화감독, 독립영화 감독, 기자, 영화시나리오 작가, 예능 PD, 방송작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동제작을 통해 기존의 보도교양 다큐 형식과는 다른 장르간의 크로스오버를 구현하였다.

특히 주목받은 제2회 '돈' 편에서는 지상파 최초로 페이크 다큐멘터리를 시도했다. 페이크 다큐멘터리는 원래 영화의 한 장르로서 풍자와 패러디를 위해 사용되었다. 다큐멘터리가 사실을 전달한다는 믿음을 역 이용하여 허구의 인물과 이야기를 실제처럼 느끼게 함으로써 극적 몰입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영화 <시라노 연애조작단>과 <광식이 동생 광태>의 김현석 감독이 연출을 맡은 '돈'은 가상의 인물 장세춘(66세)이 건물 옥상에서 자신의 전 재산인 2억을 뿌리려하는 사연을 추적하면서 돈으로 인한 메말라 버린 인간관계를 그려내고 있다.

제4회 '간첩' 편에서는 <짜패>와 <부당거래> 등의 류승완 감독이 '시사IN'의 주진우 기자와 함께 남파공작원을 직접 찾으러 다닌 과정을 담은 '메이킹 다큐멘터리'를 선보였다. '메이킹 다큐멘터리'란 영화, 드라마 등의 제작 뒷이야기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엮어내는 것이다. 차기작으로 첩보영화를 준비 중인 류승완 감독이 일종의 영화 사전 작업의 일환으로 영화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북한 공작원을 찾아 나선 것이다. 실제로 간첩을 찾지는 못했지만, '간첩'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한국사회 50년을 되짚어봤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2011년에서 2012년 상반기에도 DSLR(Digital Single-lens Reflex Camera, 디지털 일안 반사식 카메라)을 이용한 다큐멘터리 촬영이 지속되었다. 국내 최초로 DSLR로 다큐멘터리 전체를 촬영했던 작품은 2010년에 방영된 4부작 SBS <최후의 툰드라>였다. 전체 촬영을 Canon EOS 5D Mark II와 EF 렌즈로 진행해서 주목을 받았다. 내용면에서도 방송사상 최

초로 한티족의 모습을 담는 등 작품성을 인정받아 TV 방영 당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였으며 2011년 극장판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한, 2012년 ‘제45회 휴스턴 국제 필름 페스티벌’에서 TV자연 다큐 부문에서 금상을 포함하여 국내외에서 상도 많이 받았다.

그 후 DSLR을 이용한 다큐멘터리 제작이 꾸준히 시도되고 있다. DSLR을 이용한 두 번째 작품인 SBS 다큐멘터리 4부작 <최후의 바다, 태평양>으로 <최후의 툰드라>와 동일한 장비로 전체 방송분을 촬영하였다. 세 번째 작품은 2012년 6월 방영된 MBC 다큐멘터리 2부작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로 Nikon DSLR 카메라 D4와 D800 및 NIKKOR렌즈, 텔레컨버터 등의 장비를 이용했다. 이 다큐멘터리는 한국전쟁의 역사 속에서 이름 없이 죽어간 13만 젊은이들의 유해 발굴 작업과 한국전쟁 참전자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통해 전쟁의 참혹함을 보여주었다. 2012년 하반기 방영된 SBS <최후의 제국>도 전 분량을 Nikon의 D4와 D800으로 촬영했다고 발표해 DSLR을 이용한 다큐멘터리 촬영 사례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편, KBS는 2012년 상반기에 세계 최초로 프로그램 전체를 3D 입체로 제작한 의학 다큐멘터리 <태아>(방영 5월 4일 ~ 5월 11일)를 선보였다. 총 13개월의 제작기간과 4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이 다큐멘터리는 1부 ‘만남’ 편과 2부 ‘교감’ 편이 각각 50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여 일 동안 6명의 실제 임산부를 임신초기부터 출산까지 추적 촬영해 3억분의 1의 경쟁률을 뚫고 한 개의 정자가 선택되는 과정, 수정란의 자궁 착상부터 장기의 90%가 만들어지는 8주 간의 배아기의 주(週)차별 과정, 9주 이후의 태아기, 태교과정과 출산장면 등을 3D 입체 영상으로 담아냈다.

제작진은 최대한 사실에 가까운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의학용 내시경을 이용하여 난할과정을 촬영하였으며, 촬영이 어려운 태내 환경과 태아의 모습에 대해 산부인과 교수 6명으로 의학 자문단을 구성하여 철저히 검증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한 달에 한 번씩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임산부의 배를 크로마 촬영해 임신 초기에서부터 만삭까지 배 모양,

그림 5-1-19 MBC <다큐 타임>과 KBS <태아>



출처: MBC 홈페이지(<http://www.imbc.com>), KBS 홈페이지(<http://www.kbs.co.kr>)

크기, 비율들을 이용하여 몰핑작업 하는 등 사실성과 정확성을 기하였다. 이와 같은 철저한 조사와 세밀한 작업을 통해 <태아>는 태아 및 자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디테일하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다큐멘터리는 제4회 3D 한국국제영화제(3D KIFF)에서 장편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3) 국내 다큐멘터리의 글로벌 경쟁력 성장

2011년에서 2012년 상반기 동안 우리나라 다큐멘터리들은 국제영화제에서 잇달아 수상하는 등 큰 성과를 냈다. 대표적으로, 뉴욕·밴프 TV 페스티벌과 함께 북미지역 3대 TV 페스티벌의 하나로 꼽히는 '휴스턴 국제 필름 페스티벌(Houston International Film Festival)'에서 우리나라 작품의 수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KBS의 <올지마 톤즈>가 2011년에 다큐멘터리(인물) 부문에서 대상에 해당하는 플래티넘(Platinum)상을 수상한데 이어, 2012년 MBC의 <아마존의 눈물 - 프롤로그>와 휴먼 다큐멘터리 <사랑-엄마의 고백>이 다큐멘터리 부문 플래티넘상과 심사위원 특별상을 각각 수상한 바 있다. SBS의 <최후의 톤드라> 역시 TV 자연 다큐멘터리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하였다. <아마존의 눈물>은 2011년 '제53회 뉴욕 필름 페스티벌(New York Film Festival)'에서 Television & Film 문화이슈 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휴먼 다큐멘터리 <사랑>도 '아시아 TV 어워즈(Asian Television Awards)' 다큐멘터리 부문 최우수상, '밴프 월드 TV 페스티벌(Banff World Television Festival)' 심사위원 특별상, 'ABU Prize' TV 다큐멘터리 대상, 국내 최초 '국제 에이미상' 다큐멘터리 부문상 수상 등 다수의 수상경력이 있다.

한편, 2011년 10월에 방영된 KBS 4부작 다큐멘터리 <다르마(Dharma)>는 '2012 AIBD 월드TV상' 시상식에서 인류애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아시아태평양 방송개발기구(AIBD: Asia-Pacific Institute for Broadcasting Development)는 전 세계 방송사를 대상으로 종교이해 및 갈등해소 증진에 기여한 우수 프로그램을 매년 선정하여 시상해오고 있으며, 2009년에도 KBS <차마고도-순례의 길>이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다르마>는 대장경 천년 특집으로 대장경의 역사를 개괄하는 1편을 제외한 2, 3, 4편은 지구 반대편 두 곳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병렬적으로 전개하며 두 곳의 이야기가 교차되는 독특한 형식을 시도했다. 그리고 성우의 내레이션을 없애 제작진의 자의적 해설과 과장을 배제하고 출연자의 육성과 현장음을 통해 보다 깊이 있고 진실한 방법으로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였다.⁹⁾ 음악은 <마지막 황제>로 아카데미 영화음악상을 수상한 세계적 영화음악가 류이치 사카모토(Ryuichi Sakamoto)가 맡았다. EBS의 <다큐프라임-링크>도 '2012년 AIBD TV 어워드' 소셜

9) KBS <대장경 천년 특집 다르마> 홈페이지 참조.

그림 5-1-20 KBS <다르마>와 EBS <피오르와 리아스>



출처: KBS 홈페이지(<http://www.kbs.co.kr>), EBS 홈페이지(<http://ebsmedia.net>)

미디어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링크>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무한 연결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관계와 소통에 대해 고찰하였다.

2012년 6월에는 EBS와 노르웨이 국영방송(NRK)이 공동 제작한 2부작 다큐멘터리 <피오르와 리아스>가 러시아의 페테에르(PTR) 국영방송사 주최로 열린 '제8회 블라디보스토크 다큐멘터리 축제(Vladivostok Documentary Festival)'에서 최우수상과 최우수 관객상을 받았다. 제작진은 피오르와 리아스 지형의 생성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6개월간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블라디보스토크 다큐멘터리 축제'는 '홍콩 다큐멘터리 축제', '샌프란시스코 다큐멘터리 축제'와 함께 세계 3대 해양다큐멘터리 축제로서 외국 방송사 작품작이 최고상인 그랑프리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태평양보다 안전하고 시일도 짧아 저렴한 북극해 수송로 개방을 둘러싼 한국, 일본, 중국의 물밑 안보 각축의 전개를 조명한 EBS<다큐프라임-북극항로>가 특별상인 인터넷 최고상을 받았다.¹⁰⁾

이와 같은 국제영화제 수상은 국내 다큐멘터리가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주제 개발과 축적된 제작 노하우를 통해 국제무대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노력의 결과이면서 한편으로는 국내 다큐멘터리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 가능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해외 방송국과의 국제공동제작도 이루어졌는데¹¹⁾ KBS는 ABU 소속 17개 방송사(17개 국가)와 ABU 공동제작 다큐 <CARE 종합편>을 제작하였고, 울산문화방송은 일본의 TBS와 한일공동제작 <해협을 잇는 천년의 빛>을 제작하였다. EBS는 가장 활발하게 공동제작을 진행하였는데, RCN(콜롬비아)과 한국-콜롬비아 국제공동제작 <치유의 축제, 바랑키야

10) EBS <다큐프라임>홈페이지 참조.

11) 방송통신위원회(2012). 「2012년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카니발)을, 한국콘텐츠진흥원, 말레이시아와는 <아시아의 허브, 말레이시아>를, 한국인터넷진흥원, 캄보디아와 <앙코르와트, 앙코르톰 3D>를, 그리고 한국콘텐츠진흥원, 러시아와 <우랄, 알타이를 가다>를 제작하는 등 다수의 국제공동제작 실적을 올렸다.

4) 해외시장에서 EBS 다큐멘터리의 선전

올해도 다큐멘터리의 수출에서 EBS의 약진이 계속되었다. 2010년 30만 달러 규모에서 2011년 91만 달러로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2010년 수출실적 30만 달러는 EBS를 제외한 한국 지상파 TV 전체 수출실적 35만 달러에 육박하는 것이었다.¹²⁾ 수출 지역도, 북미 46%, 유럽 36%, 아시아 18% 등 전 세계적으로 고르게 분포된 것이다.

EBS는 다큐멘터리의 수출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최근 2~3년간 교육·기획 다큐멘터리인 EBS <다큐 프라임> 등을 통해 꾸준히 고품질 교육 다큐멘터리를 세계시장에 선보인 것이 주요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EBS는 교육, 지식, 과학, 육아 등의 프로그램과 다큐멘터리에 주목하면서 그동안 많은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이런 측면에서 EBS의 다큐멘터리의 수출 호조는 EBS가 공영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3D 다큐멘터리 <신들의 땅, 앙코르>는 미국의 다큐 전문 채널 스미소니언(Smithsonian) 채널에 다큐멘터리 사상 최고가(30만 달러 이상)로 수출되는 기록을 세웠다. 최근에는 역시 EBS의 다큐멘터리인 <술라웨시>와 함께 일본 NHK에 판매되기도 하였다.

또한, 기존 작품들의 수출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2011년 영화로 탄생한 <점박이: 한반도의 공룡 3D>는 개봉 전부터 해외 33개국에 판매되어 기사화 되었는데 그 후에도 영국과 프랑스, 이집트, 북미, 유럽,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등 전 세계에 수출되고 있다. 또한, 포유류 '매머드'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현한 <한반도의 매머드>는 일본 NHK와 중국 CCTV 외에 러시아, 폴란드, 인도네시아 등에 수출됐다. <바람의 혼, 참매>도 한국 다큐멘터리로는 처음으로 미국 스미소니언 채널에 방영되었고, 이탈리아 RAI와도 수출 계약을 하였다.

이런 가운데 2012년 프랑스 칸에서 열린 'MIPDOC 2012(Marché International des Programmes de Télévision 2012)' 운영위원회는 바이어들이 이번 행사에서 가장 관심을 보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TOP 30을 발표했는데, EBS의 <문명과 수학>이 9위, <생명 40억 년의 비밀>이 12위, <인류 문명 탐험>이 16위로 선정되었다. TOP 30안에 한 국가의 작품이 3개가 오른 것은 처음 있는 일로 한국의 EBS를 제외한 아시아 국가 방송국은 일본 NHK 뿐

12) EBS 공식블로그 'EBS스토리', 「다큐멘터리 명가(名家) EBS, 명성을 이어가다」.

이었다. 이는 EBS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대한 해외의 인식이 상승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의 수출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5) 다큐멘터리의 종편 시대 개막

2011년 방송계의 가장 핫이슈는 단연 종합편성채널의 개국이였다. 개국을 둘러싸고 수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지난해 12월 1일 MBN, 채널A, TV조선, JTBC 4개의 채널이 서비스를 시작하며 종편시대를 열었다. 더불어 다큐멘터리의 종편 시대도 개막되었다.

방송사별로 보면, 종합편성채널 4개사 중 가장 많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는 MBN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로드다큐 맛있는 여행>, <휴먼다큐 사노라면>, <리얼다큐 숨>, <MBN 다큐멘터리>의 4개의 프로그램을 방영중이다. TV조선과 JTBC의 경우 <봄날>과 <당신의 이야기>이라는 휴먼다큐멘터리 1개만을 방영하고 있다. MBN은 방송뉴스 제작 경험이 있어 상대적으로 다큐멘터리 취재와 촬영에 적용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고, 다큐멘터리나 교양 프로그램이 기존 자사의 이미지에도 부합하다고 생각하여 이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MBN의 시청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전략은 주효했다고 일단 평가해 볼 수 있다.

반면, 채널A는 개국과 함께 <채널A 다큐스페셜>은 1회부터 3회를 ‘아시아스페셜’ 3부작 <오래된 인력거>, <신의 아이들>, <잃어버린 고향>로 편성해 주목을 받았다. 이성규 감독의 <오래된 인력거>는 2010년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IDFA)의 장편 부문에 오를 만큼 국제무대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은 작품이다. 이 작품은 10년 동안 촬영되고, 2년간 편집해 만들어진 것으로, 다큐멘터리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한 작품이다. <신의 아이들>은 ‘2008 전주 국제영화제’ 아시아영화진흥기구상을 수상하였고, 2011년 <달팽이의 별>로 ‘암스테르담 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아시아 최초로 장편부문 대상을 수상한 이승준 감독이 연출한 작품이다. <잃어버린 고향>에서는 ‘환경 난민’이라는 새로운 현상을 심도 있게 조명하였다. 이렇듯 수준 높은 독립 다큐멘터리들을 전면 배치함으로써 시청자들의 관심을 끄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고, 이후 <눈을 떠요 아프리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2012년 4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뉴미디어 부문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는 종편 출범 후 최초의 사례로서 종편의 다큐멘터리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하지만, 2012년 5월 18일 제24회를 끝으로 <채널A 다큐스페셜>이 종영된 상태다.

최근 채널A는 다큐멘터리보다는 교양 프로그램에 주력하고자 하는 듯하다. 대표적으로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은 2011년 6월 29일 스포츠 중계와 드라마 부문을 제외한 보도·교양·예능 부문에서 종편 개국 이래 최고 시청률인 2.7%(AGB닐슨 조사결과)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이영돈 PD가 제작했던 KBS 1TV의 <이영돈 PD의 소비자

그림 5-1-21 MBN <리얼다큐 숨>과 채널A <오래된 인력거>



출처: MBN 홈페이지 (www.mbn.co.kr), 채널A 홈페이지(www.ichannela.com)

고발)과 컨셉이 비슷하여 신선함이 떨어지는 면이 있다. 1대1 전화 의료상담 프로그램인 <생방송 친절한 의사들> 역시 KBS 2TV <비타민>과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물론 모든 프로그램을 새로운 포맷으로 채울 수 없고, 시청자들에게 익숙하고 검증된 포맷을 사용하는 것이 시청률을 올리는 데 유리하다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시청자들에게 다양성을 선사하고 자사만의 색깔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획과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3 나오는 말

2011년과 2012년 상반기에는 대형 다큐멘터리들의 제작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존의 방영물들이 국내외에서 좋은 성과를 내면서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다양한 시도가 반영된 실험정신이 돋보이는 다큐멘터리도 등장했다. 하지만, 시청률이 높았던 대형 다큐멘터리들이 일률적으로 미지의 자연이나 사람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소재가 한정된 모습을 보였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다른 다큐멘터리들에서 다양한 소재를 다루었다고 하나 이들 대형 다큐멘터리들의 화제성이 워낙 커서 주목받지 못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해 깊이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다큐멘터리들도 기획되었으면 한다.

또한, 새로운 기법들이 화제성만을 낳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장르 간 결합을 통한 새로운 형식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면, 그것이 단순히 형식의 변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제의식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장치가 되어야 한다. 좋은 내용을 재미있게 전달하면 좋겠지만, 자칫 오락적인 측면이 지나쳐 다큐멘터리가 가져야 할 주제의식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방송사는 다큐멘터리에 대한 투자를 높일 필요가 있다. 다큐멘터리는 상업성이 드라마나 예능·오락 프로그램에 비해 떨어지는 면이 있으나, 시청률과 상업적 가치를 넘어서서 시청자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인 문제의식을 환기시키는 가치가 있다. 따라서 자체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종합편성채널 방송사들이 좀 더 다큐멘터리나 교양 프로그램의 양적, 질적 수준 향상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종합편성채널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프로그램의 기획이 시급하다. 기존 지상파에서 성공한 컨셉의 프로그램을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포맷을 개발하여 이슈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참신한 소재를 개발하고 치열한 고민들을 프로그램에 담아냄으로써 시청자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야 한다. 종합편성채널은 지상파와 동일한 종합편성을 하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반면 케이블방송이 가졌던 전문성이라는 경쟁력을 상실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지상파와 차별화하고, 종합편성채널채널 간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못한다면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지상파 방송사들의 다큐멘터리가 점점 대형화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제 4 절 뉴스/시사 프로그램

1 배경

방송계는 2012년을 새로운 변화에 대한 우려와 기대 속에서 맞이하였다. 2011년 12월 1일 극심한 논란 속에서 출범한 종합편성채널은 한 달의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낸 바 있다. 포화상태의 방송시장에 4개나 되는 종합편성채널의 출범에 많은 우려가 있었고, 실제로 2011년 12월 한 달 동안의 종합편성채널은 예상보다 매우 낮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특히, 기대했던 시사보도 프로그램이 낮은 시청률과 공정성에 대한 비난에 시달리며 출범 초기부터 논란이 되었다. 출범 후 한 달 동안의 이러한 혼란을 겪은 종합편성채널은 2012년을 본격적인 방송의 시작으로 삼고자 했다.

2012년을 맞는 지상파방송사의 상황도 그리 좋은 편은 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의 집권 이래 지상파방송사에서는 끊임없는 갈등이 나타났으며, 특히 시사보도 영역에서의 갈등은 점점 더 심화되었다. 시사보도 영역에서 논란이 되었던 갈등들을 살펴보면, 2008년 KBS 정영주 사장이 해임되고 취임한 이병순 사장은 사측에 비판적인 기자와 PD 50명을 한직으로 발령한 바 있으며, MBC에서는 2008년 촛불시위 이후 <PD 수첩>팀이 고발되고 2009년에는 <뉴스데스크>를 진행하던 신경민 앵커가 하차하며 적잖은 논란이 있었다. 또한, 각종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폐지와 방송 취소가 이어졌다. KBS에서는 2008년 11월 시사전문 프로그램인 <시사투나잇>과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인 <미디어 포커스>가 폐지되었고, MBC에서는 <후플러스>와 <W>가 폐지되고, <PD수첩> '4대강 6미터의 진실' 편이 방송 취소되는 등 이명박 정부의 임기 초부터 지상파방송사의 시사보도 위축에 대한 우려가 깊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2012년은 4.11 총선과 12월 19일에 있을 대선, 그리고 런던올림픽 등 굵직한 이벤트가 많은 한 해였던 만큼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방송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기대가 어느 해보다도 높았던 때라 할 수 있다. 걸프전이 CNN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대형 이벤트가 있을 때 시사보도 채널이 성장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종합편성채널은 선거라는 굵직한 이벤트가 있는 2012년을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자 했으며, 종합편성채널의 도전에 대응하는 지상파방송사에서 시사보도 영역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새로운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기대와 우려 속에서 시작된 2012년은 시사보도의 영역에서 선거와 올림픽 등 대형 이벤트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냈고, 많은 논란도 불러일으켰다. 본 글에서

는 2012년 동안의 시사보도 영역의 주요 트렌드와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논란들을 정리하였다.

2 시사보도 영역의 새로운 트렌드

1) 경쟁의 심화: 편성 변화와 스튜디오 대형화

2012년의 시작과 함께 시사보도 영역의 트렌드 변화는 눈에 띄게 나타났다. 보도의 내용적 변화가 아닌, 시청자에게 전달되는 편성 시간대와 시청자가 보는 화면 구성에서 큰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이는 종합편성의 출범과 이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의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먼저, ‘스튜디오 리뉴얼의 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각 방송사의 뉴스 스튜디오에 큰 변화가 있었다. MBC는 종합편성 출범전인 2011년 11월 이미 뉴스 스튜디오에 큰 변화를 주었다. 그동안 뉴스 스튜디오의 개편은 2~3년에 한 번씩 있어왔지만, 이번 스튜디오의 개편은 이전까지 개편과 비교해서도 눈에 띄는 매우 큰 변화를 주었다. 일단 뉴스 룸의 전체적 공간을 넓히면서 메인 앵커의 뒷 배경 스크린을 크게 확장하였다. 또한, 뉴스 진행자의 데스크도 그 동안의 일자형 데스크를 넓은 사각형 데스크로 교체하는 등 전체적인 뉴스 룸 이미지를 쇄신하였다. SBS 역시 2011년 하반기부터 뉴스 룸 개편을 위한 대대적인 작업을 시작한 끝에 2012년 1월 1일 메인 뉴스부터 새로운 뉴스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시작하면서 2012년이 뉴스 경쟁의 한 해가 될 것임을 보여주었다. SBS의 뉴스 룸 리뉴얼 역시 뉴스 스튜디오를 대형화하고 특히 뉴스 소스 화면을 대형화하여 화면의 역동성을 강조했다. KBS 역시 뉴스 스튜디오의 리뉴얼 작업을 통해 앵커 뒤편의 대형 배경화면 스크린과 함께 우측에도 대형의 배경 스크린을 추가하였다.

종합편성채널 뉴스의 화면 구성도 과거 뉴스에 비해 더욱 대형화하고 화려해지는 특성을 나타냈다. 특히, JTBC 뉴스의 CG 화면은 2012년 내내 많은 화제를 일으켰다. 앵커 뒤의 대형 스크린에 3D의 CG를 활용하여 매우 역동적이고 현란한 화면을 보여주었다. 기존 뉴스의 정적인 화면 연출 방식에서 벗어난 이러한 화려한 화면 구성은 시청자들에게 뉴스의 전형적 포맷을 벗어난 신선하다는 평가와 다소 생소하고 어색하다는 엇갈린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그림 5-1-22 SBS 8 뉴스 스튜디오



출처: SBS 홈페이지(<http://www.sbs.co.kr>)

이러한 방송사의 뉴스 스튜디오 개편과 CG강화 등 화면 연출 방식의 변화는 향후 뉴스의 포맷이 어떤 형태로 변화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전면에서 앵커를 비춰주는 고정적인 화면 구성에서 벗어나, 부감 영상을 통해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뉴스의 이미지를 형성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뉴스 진행에 있어서 진행자의 움직임이 보다 동적으로 변화하고, 뉴스 화면구성에 있어서도 전형적인 배치에서 벗어나, 보다 역동적인 화면구성을 꾀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지상파방송의 이러한 변화는 상당 부분 종합편성채널의 출범을 의식한 것으로 종합편성채널의 주력 프로그램이 될 뉴스 보도에 있어서 이에 대한 경쟁력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라 해석할 수 있다. 또한, 2012년의 총선과 대선이라는 대형 뉴스 이벤트를 앞두고 지상파방송 3사간의 경쟁이 한층 치열하게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상파방송 3사의 메인 뉴스 경쟁은 급기야 편성시간대의 변경으로까지 이어졌다. MBC의 <뉴스데스크>는 이미 2010년 11월 주말 뉴스시간대를 기존 9시에서 8시로 옮겨 뉴스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 바 있다. 커다란 변화였지만 이는 MBC의 뉴스 경쟁력의 문제로 생각되기 보다는 주말시간대의 시간만 변경하는 것이었기에 시청자들의 주말 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른 시간대의 불가피한 조정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뉴스데스크>는 2012년 내내 지속적으로 낮은 시청률을 보이던 끝에, 2012년 11월 5일부터 평일 <뉴스데스크>의 방송시간 역시 8시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는 1976년 <뉴스데스크>가 저녁 10시에서 9시로 시간을 옮긴 이후, 처음 있는 뉴스시간대의 조정이라는 충격을 주었다. 오랜 시간 동안 <KBS 9시뉴스>와 함께 저녁 9시를 메인 뉴스시간대로 인식하게 만든 대표적 뉴스 프로그램이 시간대를 옮겼다는 점에서 놀라운 변화라고 할 수 있다. 9시대의

대표 뉴스 프로그램의 이동은 종합편성채널에도 연쇄적인 변화를 발생시켰다. JTBC가 12월 1일부터 메인 뉴스의 방송시간대를 기존 저녁 10시에서 9시로 이동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JTBC는 9시대의 '공영 (KBS) 1민영 (JTBC) 뉴스 체제'를 자리 잡게 하겠다고 선언하며, 과감하게 9시대로의 편성 변경을 단행하였다. MBC <뉴스데스크>의 이동으로 오랜 기간 메인 뉴스 시간대로 생각되어 온 9시대에 경쟁이 덜 치열해진 기회에 빠르게 반응한 것이다.

MBC의 <뉴스데스크> 편성 변화와 JTBC 메인 뉴스의 편성 변경은 뉴스를 중심으로 한 방송사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쟁이 과거 보다 더욱 치열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종합편성채널의 신설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종합편성채널의 뉴스 시청률은 2012년 초 매우 낮게 출발했으나, 대선이 있는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소폭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뉴스 시청률과 관련하여, 2012년 가장 큰 성과를 거둔 방송사는 SBS라 할 수 있다. KBS와 MBC에 한발 뒤쳐져 있던 SBS는 타 방송사의 혼란 속에서 2012년 연초에 실시한 뉴스 포맷의 변화가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으며 뚜렷한 시청률의 상승을 나타냈다. 반면, MBC는 오랜 기간의 파업과 함께 김재철 사장을 둘러싼 잡음 속에서, 시청자들의 뉴스 신뢰도와 영향력 평가가 하락하며 시청률 역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이런 상황을 반전시키고자 과감히 저녁 8시대로 메인 뉴스의 시간대를 옮기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2012년 뉴스 프로그램에 나타난 스튜디오 및 뉴스 포맷의 변화와 MBC와 JTBC가 보여준 뉴스시간대 변경은 앞으로 메인 뉴스를 중심으로 한 방송사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을 보여주는 신호탄과 같다. 향후 시청률 바닥을 치고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한 종합편성채널과 이에 대응하는 지상파방송사 간에 더욱 치열한 뉴스 시청률 경쟁이 전망된다.

표 5-1-1 2012년 방송사별 메인 뉴스 월 평균 시청률 추이

(단위: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KBS1	18.5	19.6	18.4	18.3	17.9	17.3	18.9	21.2	20.0	20.6
MBC	10.4	6.8	5.7	5.2	5.0	4.3	5.8	7.1	6.4	6.4
SBS	12.1	12.9	12.5	12.3	11.1	9.9	10.7	12.2	12.0	11.2
채널A	0.3	0.3	0.4	0.5	0.4	0.4	0.5	0.6	0.6	0.8
TV 조선	0.4	0.4	0.4	0.5	0.4	0.4	0.4	0.4	0.6	1.0
JTBC	0.5	0.4	0.5	0.6	0.6	0.5	0.6	0.7	0.7	0.7
MBN	0.3	0.3	0.4	0.3	0.3	0.3	0.3	0.4	0.4	0.4

출처: AGB닐슨 자료.

2) 시사대담 프로그램의 증가

2012년 시사보도 영역에 나타난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시사대담 프로그램의 증가이다. 12월 19일에 있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방송사마다 정치인, 평론가, 전문가를 앞세운 시사대담 프로그램이 크게 늘어났다. 특히, 종합편성채널에서는 매일 1시간 이상씩 대담과 토론 위주의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가히 시사대담 프로그램의 전성기를 이끌었다.¹³⁾ 채널 A의 <박종진의 쾌도난마>, MBN의 <정운갑의 집중분석>, <고성국의 시사콘서트 정치IN>, TV조선의 <장석민의 시사탱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프로그램들은 모두 진행자의 이름을 내걸고 하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의 경우, CNN의 <래리킹 라이브>, FOX <디 오라일리 팩터> 등 진행자의 이름을 내걸은 시사대담 프로그램이 오래 전부터 많은 인기를 끌고 있으나, 국내에서 진행자의 이름을 내걸은 시사대담 프로그램이 등장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진행자의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매일 그날의 이슈를 전문가를 초청하여 심층분석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은 프로그램은 채널A에서 방영하는 <박종진의 쾌도난마>라고 할 수 있다. <박종진의 쾌도난마>는 2011년 12월 26일 편성된 이후 꾸준히 인지도가 상승되면서 2012년 하반기에는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 중에는 이례적이라 할 수 있는 2%대의 시청률까지 보이기도 하였다. 특히, 각 계의 주요 인사를 불러 대담을 나누는 '시사토크 쾌도난마'가 간판 코너인데, MBN에서 자리를 옮긴 박종진 앵커의 톡톡 튀는 입담과 함께 출연자들의 걸리지 않은 거친 표현과 근거가 희박한 무리한 주장, 전혀 예상치 못했던 엉뚱한 주장 등이 화제를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그 중에서도 2012년 10월 31일 방송 편에서 황상민 연세대 교수가 박근혜 후보에게 던진 발언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결국 김성주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이 연세대를 향의 방문하는 등의 소란 끝에, 황상민 교수는 연세대에서 경고를 받고 <박종진 쾌도난마>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인 경고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이밖에도, <쾌도난마>는 수차례 역술인을 출연시켜 대선주자들의 관상과 사주를 보는 등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편파적인 내용이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시사대담 프로그램과 뉴스 속에 대담코너가 증가하면서 정치 평론가들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 또한 증가하였다. 대선을 앞둔 시점인 만큼 2012년 한 해 동안 많은 시사대담 프로그램과 뉴스 프로그램들은 정치평론가들을 경쟁하듯 초빙하여 그들의 대선판세 분석 및 논평, 전망을 전달하였다. 소신과 근거에 바탕한 평론이나 다양한 예측이 존중돼야 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정치평론가의 평론은 비교적 자유로운 영역이었지만, 대선 예측에 대한

13) 최영재(2012). '토크 저널리즘'의 부상: 도식 틀 깨는 계기, 저널리즘 원칙 일탈은 경계. 『방송기자저널』, p.8.

관심이 늘어나면서 평론 역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정치평론가들의 정치 편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늘어나면서, 사회적인 파장을 만들어 냈다. KBS를 비롯하여, YTN과 MBN 등 다양한 방송에 자주 출연하는 정치평론가 고성국 평론가에 대한 논란이 대표적인 예이다. YTN 노조와 OBS 노조에서는 고성국 평론가의 발언이 지나치게 친박근혜적인 편향성을 보였다면서, 경영진에 방송출연 정지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특히, 고성국 평론가의 경우, 새누리당의 대선 기획단 회의와 같은 주요 정치 행사에도 참석한 것으로 나타나, 평론가의 정치적 성향을 둘러싼 논란을 증폭시켰다. 일부에서는 시사평론 프로그램에서 평론가의 정치적 성향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해당 프로그램의 성격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다른 한편에서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평론이 TV 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객관성을 잃게 한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2012년 한 해 동안 있었던 시사대담 프로그램의 증가가 앞으로도 과연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는 미지수이다. 시사대담 프로그램은 그 특성상 진행자의 능력에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카리스마 있는 진행자를 중심으로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새로 출범한 종합편성채널에서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여 대선이라는 정치적 관심사를 다루는 것이 2012년 큰 흐름을 만들었으나, 이 과정에서 종합편성채널들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논란이 한층 증폭된 것 또한 사실이다. 토크 저널리즘이라 불리는 시사대담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으나, 사적, 주관적, 감정적인 특징으로 인하여 자칫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경계를 가져야 할 것이다.¹⁴⁾ 편파와 분열, 선정성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자주 받고 있는 미국의 시사대담 프로그램들이 이러한 예가 될 것이다. 과연 대선이라는 대형 정치적 이벤트가 종료한 후에 우리의 시사대담 프로그램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하다.

3 주요 논란

1) MBC 파업과 보도 공정성

MBC 노조는 김재철 사장의 퇴임을 요구하며 2012년 2월부터 7월까지 약 170일 동안 파업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KBS 노조 역시 부당 징계 철회와 김인규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3월부터 파업에 들어갔으며, 뉴스 전문 채널인 YTN 역시 파업을 하는 등 사상 유례 없는 방송 3개사의 동시 파업 사태가 벌어졌다. 이러한 동시 파업이 일어난 주된 이유는

¹⁴⁾ *ibid.*

각 방송사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경영진과 노조의 갈등이지만, 이와 함께 각 방송사에 내보내고 있는 뉴스 공정성에 대한 노조 구성원의 불만이 크게 작용하였다. 실제로 MBC는 자사 기자회견부터 ‘엄기영 강원도지사 후보 불법선거운동 축소 보도’, ‘〈피디수첩〉 판결 왜곡 보도’, ‘10.26 재보선 불공정 보도’ 등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후 MBC 뉴스 편파보도 논란은 노조 장기 파업의 주요한 이유가 되기도 했다.

2012년에도 각 방송사들의 뉴스 프로그램 공정성은 많은 논란을 발생시켰다. 특히, MBC의 경우는 간판 뉴스 프로그램인 〈뉴스데스크〉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보도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공개된 방송문화진흥회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의 QI(Quality Index, 품질평가지수) 조사 결과 MBC 〈뉴스데스크〉의 공정성·신뢰성이 크게 하락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신경민 의원실에서 2012년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도 MBC 보도의 공정성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MBC 뉴스보도 전반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과반에 육박하는 49.6%가 ‘편향적’이라고 응답했으며, ‘객관적’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27.5%, ‘잘 모름’은 22.9%로 나타났다. 또한, 이명박 정부 들어 뉴스 보도의 공정성이 가장 저하된 방송사가 어디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다수인 43.9%가 MBC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MBC 뉴스 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낮은 평가는 이명박 정부 출범이래 지속되어온 MBC의 편파 보도 논란과 관련이 있다. 특히, 2011년 하반기 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이후 2012년에도 지속적으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타 방송사에서 주요 뉴스로 다뤄지는 아이템들이 MBC 보도에서 나타나지 않는다거나, 총선보도에서 특정 정당에게 유리한 보도를 했다는 등의 공정성 지적이 잇따랐다. 2012년 공개된 방송문화진흥회의 보고서는 MBC 내부 경영평가에서조차 2011년 이후 벌어진 공정성 논란이 실제 시청자들의 MBC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2년에는 총선과 대선에 있는 해였던 만큼, 선거보도와 관련하여 많은 공정성 논란이 발생하였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을 포함한 시민단체들과 각종 방송 단체들은 4.11 총선보도 평가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방송 3사의 보도가 부실하고 편파적이라고 지적하였다. 먼저, 민주언론시민연합의 ‘4.11 총선 선거보도 모니터 평가 보고서’에서는 총선과 관련하여 정책보도가 어느 해보다도 부실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총선기간 동안의 정책보도는 KBS의 7건을 제외하면, MBC는 4건, SBS는 2건으로 다른 선거보도와 비교하여 매우 적었으며, 복지과 경제민주화 등의 정책 이슈는 ‘포퓰리즘’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KBS와 MBC의 보도는 민주통합당의 김용민 후보의 막말 파문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반면, 새누리당의 문대성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과 김형태 후보의 성추문 등의 이슈는 거의 보도되는 않은 등 노골적으로 여당에게 유리한 이슈를 중심으로 선정하는 경향을 나타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방송카메라기자협회에서 실시한 ‘19대 총선거와 보도영상의

공정성' 세미나에서는 19대 총선의 방송보도 영상이 새누리당 관련 보도에서는 풀샷(full-shot)을 많이 사용하여 청중의 호응을 강조하는 반면, 민주당 관련 보도에서는 청중의 소극적인 반응이 많이 등장하는 등 의도적인 편집과 구성을 통하여 만들어진 불공정한 영상 보도였음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대선보도와 관련하여서도 보도 공정성에 대한 많은 논란이 발생하였다. '2012 대선보도 민언련 모니터단'의 보고에 따르면, 방송 3사의 보도가 야권후보 단일화 관련 보도에서 주로 '갈등'이나 '경쟁구도'를 부각하는 경향이 있고, 반면, '투표시간 연장'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심도 있게 다룬 보도가 많지 않다는 지적을 하였다. 특히 방송사들은 야권 단일화 방식을 둘러싼 회의적 전망을 내놓거나 경쟁구도를 부각하는 한편, 보도 앞뒤로 특정 후보와 새누리당의 '비난 공세'를 덧붙이는 등 야권 단일화에 대한 흠집 내기 보도가 많았다고 지적하였다.

2) 성범죄 보도의 선정성

2012년 방송 뉴스의 보도와 관련하여 나타난 가장 큰 논란 하나는 성범죄 관련 보도의 선정성에 대한 것이다. 2008년 일명 '조두순 사건' 이후 최근 몇 년간 언론의 성범죄 관련 보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2012년에는 아동 성폭력을 비롯한 성범죄에 대한 기사가 더욱 증가하였다. 이는 나주 아동 성폭력 사건 및 통영 '아름양' 사건 등 충격적인 아동 성범죄가 발생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언론의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례로 한국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가 2012년에 발표한 '나주 아동 성폭력 사건 보도 모니터 보고서'를 보면, 3개 지상파방송과 10개 신문에서 각각 61개와 284개의 기사를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의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많은 수의 기사를 만들어 낸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성범죄 보도가 적절치 않은 방식으로 성범죄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위의 보고서에 따르면, '나주 아동 성폭력' 사건 보도 가운데 58퍼센트의 기사가 피해상황을 글과 그림, 영상으로 상세하게 보도해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등 성범죄 보도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나주 아동 성폭력 사건 외에도 성범죄와 관련한 심층취재 보도를 하는 등, 방송사들은 2012년 동안 성범죄에 대한 많은 보도를 쏟아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도는 사건에 대한 정밀한 분석 또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과 같은 알맹이 있는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단지 성범죄의 실태를 나열식으로 언급하는 등 피상적인 접근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¹⁵⁾ 일례로 2012년 4월에 발생한 '오원춘 사건'의 보도를 살펴보면, 방송사들의 취

15) 양영철(2012). 일관성 없고 피상적 접근에 그친 아동 성범죄 보도. 「방송기자저널」, p.6.

재 경쟁은 곧 선정적인 보도를 양산하여, 피해자의 시신이 어떻게 훼손됐는지, 내몽고 출신의 오원춘은 왜 인육에 집착했는지 등에 대한 선정적인 추측 기사들이 줄을 이었다. 물론 오씨가 인육을 노렸는지 여부는 법정에서도 다툼의 대상이었지만, 이를 추정하는 방식의 선정적인 보도는 과연 성범죄에 대한 보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특히, 종합편성채널의 성범죄 관련 보도는 지상파방송 보도와 비교하여 더욱 선정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종합편성채널 중 한 채널은 ‘오원춘 사건’의 살해당하는 순간 피해 여성 목소리를 재연하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매달리는 여성의 처절한 목소리를 흉내 내어 보도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다른 종합편성채널의 프로그램 하나는 ‘나주 사건’ 보도를 하며,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을 공개하고 이어 피해자의 집 내부를 촬영해 방송하는 등 피해자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보도로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¹⁶⁾

방송사들의 선정적인 성범죄 보도 경쟁은 방송사 내외의 많은 질타로 이어졌다. 특히, 한국기자협회는 언론사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를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구체적인 성범죄 보도 기준 마련에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10월 15일 실시한 토론회를 통하여, 최근 성범죄 관련 보도가 방송사 간의 경쟁으로 지나치게 선정적이며, 피해자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또한 성범죄에 대한 공분에 편승해 인권을 도외시하는 보도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선정적 보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범죄 보도에 대한 세부 기준을 언론인 스스로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어서 11월 12일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실무 위원회를 개최하여 초안으로 전문, 총강, 10개 실천요강으로 구성하는 등 구체적인 성범죄 보도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올림픽 보도 과다

양대 선거와 함께 2012년을 가장 뜨겁게 달구었던 이벤트는 바로 런던올림픽이었을 것이다. 각 방송사는 연초부터 ‘올림픽 대표 방송’, ‘올림픽 채널’ 등의 슬로건을 내세우며 올림픽 중계에 중점을 둘 것을 공언하였으며, 실제로 올림픽 기간 동안 타 프로그램들을 밀어내고 올림픽 특집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편성하였다.¹⁷⁾ 런던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이 금메달 13개,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로 종합순위 5위에 오르며 선전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더욱 뜨겁게 하였다. 이러한 열기를 반영하듯이, 올림픽 기간 동안 방송 3사의 뉴스 역

16) 이승선(2012). 섬세하고 엄밀한 취재 없다면 차라리 보도하지 말아야: 인권보호 등 성범죄보도 개선방안. 『신문과 방송』, pp.28-32.

17) 김원제(2012). 대체, 결방, 실종...‘올림픽 채널’화 심각: 2012 런던 올림픽 보도 비평. 『신문과 방송』, pp.37-42.

시 올림픽과 관련된 수많은 보도를 쏟아냈다. 올림픽 기간 동안 지상파방송 3사는 물론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등 모든 방송 매체들은 ‘런던올림픽 특집’이라는 명칭을 붙여 가며 런던올림픽의 주요 경기 결과를 집중 보도 하였다.

이러한 방송사들의 올림픽 집중 보도는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지구촌 최대의 축제인 올림픽을 다양하고 심도 있게 전달하여, 스포츠를 통한 국민적인 자긍심과 감동을 준다는 면에서 부정적으로만 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런던올림픽 관련 보도의 평가를 보면, 올림픽 기간 동안의 모든 뉴스가 올림픽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서 주요한 사회, 정치 의제는 거의 실종되다시피 하는 등 방송 뉴스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올림픽 기간 동안 지상파방송 3사의 뉴스는 대부분 첫 뉴스부터 10개 이상의 보도를 올림픽 관련 보도로 메웠으며, 전체적으로 매일 절반 이상의 기사가 올림픽 관련 내용을 다뤘다. 금메달 획득이나 오심논란 등 올림픽과 관련된 주요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보도의 대부분을 올림픽 관련 보도로 채우기도 하였다. 특히 올림픽 축구 경기에 대한 보도는 가히 놀라울 정도였는데, 축구경기 중 4강 진출에 성공한 날과 3, 4위 한일전에서 승리한 날 방송 3사의 메인 뉴스는 축구 특집이라 할 정도로 거의 모든 뉴스를 축구로 도배하기도 하였다.¹⁸⁾

매번 올림픽 또는 월드컵 같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마다 방송사의 지나친 보도 경쟁이 지적된 바 있다. 방송사의 과열된 보도로 인하여 뉴스 본연의 환경감시 기능이 마비되었다고 비판을 받고 하였는데, 이번 런던올림픽 기간 동안의 보도행태는 이러한 과열된 스포츠 보도 경쟁이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새누리당의 공천현금 의혹, 원전가동 위험성 노출, SJM 폭력 용역 사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비리 등의 굵직한 사건들이 발생하였으나, 대부분의 사건들은 올림픽 뉴스에 가려져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다. MBC의 경우, 올림픽 기간 동안 올림픽이 아닌 뉴스가 톱 기사를 차지한 경

표 5-1-2 지상파방송 3사 종합뉴스의 올림픽 관련 뉴스 아이템 수

일자	올림픽 관련 주요 뉴스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올림픽 뉴스/전체	올림픽 뉴스/전체	올림픽 뉴스/전체
7/29	진중오 첫 금/여자양궁 단체7연패	27/33	21/26	16/20
7/30	신아람 오심논란/축구 스위스 전 승리	24/30	23/34	14/20
8/2	김장미, 김지연, 송대남 금메달	18/34	16/28	15/23
8/3	양궁 여 개인전 기보배 금메달	17/32	16/24	19/28
8/5	축구 4강 진출	11/25	22/38	16/20
8/11	축구 한일전 승리, 사상 첫 메달	19/25	14/17	17/23

18) 방운현 (2012). 축구와 금메달, 애국주의에 치우친 올림픽 방송보도. 『방송기자저널』, p.6.

우는 5번에 불과할 정도로 이러한 사건들은 거의 보도되지 않거나 수박 겉핥기식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졌다.¹⁹⁾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올림픽 기간에도 올림픽에만 편중되지 않는 보도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 올림픽을 주관한 영국도 BBC, ITV를 포함한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올림픽 관련 보도에 몇 분만 할애한 것으로 나타났다.²⁰⁾ 이와 비교하여, 국내의 올림픽 보도는 분명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과도한 올림픽 보도의 배경에는 시청률 경쟁이 작용하고 있다. 올림픽 기간 동안의 애국주의와 국민감정에 영합하는 보도를 통하여, 방송사 뉴스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노력이 과도한 올림픽 보도로 연결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애국주의적 보도 경향은 뉴스의 내용에서도 잘 나타났다. 박태환의 400미터 예선 실격 소동, 펜싱 신아람 오심 논란 등의 보도에 있어서, 방송 뉴스는 객관적 보도 행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국가주의가 도를 넘어서는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심판의 국적을 바탕으로 억측을 하기도 하고, 상대 선수의 부상을 ‘잘된 일’로 묘사하는 등 애국주의적 보도 행태가 들어난 뉴스의 내용도 많은 지적을 받았다.

4 결어

2012년의 방송 뉴스에 나타난 주요한 특징들은 향후에 있을 방송사 간의 치열한 보도 경쟁을 예고하는 징후들이라 할 수 있다. 2011년 12월 출범 이후 부진한 시청률을 보이던 종합편성채널의 뉴스 시청률이 조금씩 상승하면서 앞으로 지상파방송 3사 뿐만 아니라 종합편성채널을 포함한 여러 플랫폼을 통한 뉴스 채널들 간의 본격적인 보도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동안의 각 방송사의 메인 뉴스 편성시간대를 둘러싼 치열한 눈치 싸움, 뉴스 스튜디오의 대형화 및 CG 그래픽의 강화, 그리고 각종 성범죄 보도와 올림픽 보도에서 나타난 선정적 보도 등은 이러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들이다.

이러한 경쟁의 심화는 뉴스 형식의 다양화와 그래픽 및 스튜디오 개선 등 보도 품질 경쟁이라는 긍정적인 면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뉴스 시청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선정적 보도 또는 애국주의적 보도 경향이 심화되는 부정적 결과로 나타나기도 할 것이다. 특히, 종합편성채널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시사대담 프로그램의 증가는 앞으로

19) 김원제(2012). 대체, 결방, 실종... ‘올림픽 채널’화 심각: 2012 런던 올림픽 보도 비평. 『신문과 방송』, pp.37-42; 방운현(2012). 축구와 금메달, 애국주의에 치우친 올림픽 방송보도. 『방송기자저널』, p.6.

20) 김원제(2012). 대체, 결방, 실종... ‘올림픽 채널’화 심각: 2012 런던 올림픽 보도 비평. 『신문과 방송』, pp.37-42.

우리나라 방송 저널리즘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걱정을 동시에 갖게 한다. 기존 1분 30초의 틀에 갇혀 있는 저널리즘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하여 국민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이러한 시사보도의 특성이 자칫 객관성과 공정성을 원칙으로 하는 저널리즘의 기본을 훼손하는 것에 대한 우려 또한 일으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범죄 보도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뉴스 제작구성원들의 자성적 움직임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방송사들의 치열한 시청률 경쟁 속에서도 성범죄 보도에 있어서 보도 준칙을 마련하려는 이들의 자성적 움직임은 방송 저널리즘이 가져야하는 기본과 원칙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방송사업자 간의 경쟁심화로 시장 상황이 더욱 각박해질수록 방송 뉴스가 선정적이고 편파적이게 될 가능성은 높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널리즘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에 의한 사회적 감시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못지않게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지키려는 뉴스 제작과 관련한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노력 또한 중요할 것이다.